Arise PNU
같이 더 높게



#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
# 문창 문예 공모전 수상작

[ 시, 수필, 일러스트, 소설 ]

부산대학교 교수회

# 목 차


**Ⅰ. 시 부문** ····· **1**

1. 장원) 거울 효과 ····· 2

2. 우수) 허물 ····· 3

3. 가작) 자백의 시간 ····· 4

**Ⅱ. 수필 부문** ····· **6**

1. 장원) 물살을 가르는 일 ····· 7

2. 우수) 다음 생에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 9

3. 가작) 이번엔 진짜 맞아? ····· 12

**Ⅲ. 일러스트 부문** ····· **14**

1. 장원) 첫사랑얘기해주세요 ····· 15

2. 우수) yolo ····· 53

3. 가작) INFJ와 생각의 바다 ····· 66

**Ⅳ. 소설 부문** ····· **67**

1. 장원) 낙하하는 고래 정원 ····· 68

# 시 부문

| [ 시 부문 : 장원 ] | | | |
|---|---|---|---|
| **성 명(학번)** | 이찬희(202133122) | **학 과** | 국어교육과 |
| **작 품 명** | 「겨울 효과」 | | |

**<겨울 효과>**

새벽보다
새벽의 푸르스름이 먼저 찾아온다

겨울은 슬픔이 쉽게 자라는 시간

미처 다 뱉지 못한 입김이
창에 넝쿨처럼 새겨지고

나는 서투르게 눈싸라기의 줄기들을 훑었다

베개 속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이
울타리를 넘어 웅크린 양들을 깨웠어

골목의 풍경이 차츰 밝아져도
말똥한 눈가에 보이는 건 생경한 표정

까치발을 든 채 거실로 향해

거실의 조도는 이제 막 시작하는 이야기

따뜻한 실내가 녹기 시작했다
바깥에선 양 우는 소리가 들린다

손목이 시려웠었다는 걸 이제야 느낀다
함께 손목이 시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 [ 시 부문 : 우수 ] | | | |
|---|---|---|---|
| **성 명(학번)** | 김차성(202595153) | **학 과** | 교육학과 |
| **작 품 명** | 「허물」 | | |

**<허물>**

지난여름, 생의 단단한 갑옷이 누군가의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다
무뎌진 인생을 벗고 나면, 진물 돋는 연약한 피부 위에는
무엇이 남는가
버석거렸던 인생을 벗고 나면, 그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오래된 침묵이 가장 견고한 외침을 만들었듯이
온몸으로 자신을 밀고 나가던 애벌레*가
마침내 스스로를 구속하고 깨뜨렸듯이

무뎌진 인생은 남겨 놓고, 그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너무 밝은 빛을 품어 당신 신체는 투과되었나
무뎌진 인생들만 남겨 놓고
은빛 날개 펄럭이며, 훨훨 당신은 어디로 갔는가

*고현철「길」

| [ 시 부문 : 가작 ] | | | |
|---|---|---|---|
| **성 명(학번)** | 양현아(202003176) | **학 과** | 언어정보학과 |
| **작 품 명** | 「자백의 시간」 | | |

**<자백의 시간>**

시계를 마주하며 병을 기울인다
내가 술잔을 들면
시계 유리에 비친 여자도 술잔을 든다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고
때때로 지옥같이 끔찍하기에

본 제품
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품질에는 이상이 으므로
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
"흔들어 드세요"

건배

내가 젖병 고무를 문 순간부터
술을 들이켤 때까지
새벽 세 시에도
오후 두 시에도
가끔은 밤 열 시에도
금이 간 시계 유리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낯선 여자

나트륨 50 밀리그램
탄수화물 십오 점 팔 밀리그램

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저 여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목구멍으로 삼킨 것들을 아무리 토해 봐도
저 여자의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고

트랜스지방 영 밀리그램
콜레스테롤 영 밀리그램

창피할 따름이다

창피할 따름이니까

쇠숟가락을 들여다보면
벌건 아지랑이처럼 떠다니는 얼굴
잔뜩 취한 뺨은
내 것 같기도
어쩌면 그 여자의 것 같기도 해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향미증진제 소르비톨 효소처리스테비아
본 제품은 우유 밀 계란 토마토 호두 손톱 적색504호 섬유 다발
에틸아세테이트 복숭아 닭고기를 사용
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바삭한 술잔을 넘긴다 움틀대는 뱃속에는 오늘도 욕지기가 차오르기에
나는 영영 그 여자를 응시하고 있고
그래서 영영 그 여자를 알지 못하고

총 내용량
밀리리터
1회 제공량당 함량

물 같이 마셔

# 수필 부문

| [ 수필 부문 : 장원 ] | | | |
|---|---|---|---|
| 성 명(학번) | 이지은(202305164) | 학 과 | 문헌정보학과 |
| 작 품 명 | 「물살을 가르는 일」 | | |

대략 10년 전에 나온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다. '욜로욜로요,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 나는 한류스타의 노래로 'YOLO'를 잘못 배웠다. 당시 나는 규정 빡빡한 사립 학교의 교칙에 따라, 계단을 오를 때면 손가락으로 치마 양쪽을 살짝 잡아줘야 할 만큼 기다란 교복 치마를 입고, 해마다 학생회나 선도부를 하고, 입학 이래로 단 한 번도 벌점 받은 적 없는 근면한 학생이었다. 그 성실함 속에서 조금은 발칙하게, 스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스물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지금의 평화롭고 답답한 태도는 버리고 아주 '욜로 라이프'를 살아야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다짐했다. 저렇게 빛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니, 자유롭게 용돈을 탕진하고 내일 없이 술 마시는 것이 정말 즐겁겠거니, 그것이 정답이겠거니 했다.

그 노래가 가사 그대로 표면상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 스물하나가 끝날 때쯤에나 알았다. 애석하게도 스물이 되자마자 기숙 재수학원에 콕 박혀 머리를 한데 모아 질끈 묶고 공부하느라 헛배운 욜로는 스물하나에나 실천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 조금 긴 수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나는 매일 밖으로 나돌았다.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으레 그렇듯 막차까지 술을 마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있겠다고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는 전화를 했다가 대판 싸웠다. 숨결에 알코올 냄새가 깊게 배서는, 살갗의 모공 하나하나에서도 쓴 내음이 풀풀 나는 상태로 입이 불퉁 나와 집에 돌아오곤 했다. 반항처럼 매일매일을 막차 타고 돌아오며 술을 마셨다.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엄마가 3월에 쥐여준 용돈 백만 원은 선후배 동기들과 삼삼오오 모여 술과 함께 친목을 다지다 바닥이 났다.

어른의 세상에 편입하려고 몸이 달떠 어쩔 줄 모르던 몸짓은 무더운 여름이 다가와서야 잠잠해졌다. 백만 원을 의미 없이 탕진하고 몸소 욜로를 실천한 끝에, 찌르르한 풀벌레 소리 아래서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파열음 속에서 문뜩 생각했다.

이거 되게 별로다.

얼굴은 술기운으로 뜨뜻미지근하고 벌건데 머릿속은 누가 소주를 궤짝으로 부어 씻어낸 것처럼 명료했다. 머리가 팽팽 돌며 더 명료한 결론을 냈다.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건 그냥 내가 고등학생 때 매체를 보며 동경하고 상상으로 꾸며낸 대학 생활이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나는 사실 술도 약하고, 낯설거나 어정쩡하게 친분 있는 사람들과 소음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노는 거 불편해하는구나. 즐겁기야 했지. 그런데 즐거움보다 속이 불편한 게 더 컸다.

내가 나를 알았으므로 그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다. 막차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도 가 봐야 한다 너스레를 떨며 나와 집 가는 버스를 탔다. 가는 내내 나를 이렇게 살게 한 문제의 노래를 다시 들었다. 듣는 내내 입매가 굼질거리며 아래로 축 처지는 곡선을 그렸다. 헛웃음을 닮은 탄식이 비실비실 입술 틈으로 샜다. 다시 듣는 노래는 어딘가 색달랐다. 조금 더 자란 머리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일 없이 먹고 마시고 놀자고 말하는 노래가 아니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 고민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라는 뜻이었겠지....

나를 단단히 속인 흥겨운 노래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얄팍하게 이해하고 다짐했던 어린 내가 괜히 미웠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 화면에 뜬 노래의 제목을 빤히 들여다보며, 지문 자국이 그 위에 번잡하게 남게 화면을 엄지 끄트머리로 꾹꾹 문질렀다.

벼락같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바뀔 수는 없다. 그건 만화나 영화 주인공의 얘기고, 내가 사는 삶은 현실이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느리게 바뀌는 수밖에. 그 속도가 민달팽이나 코알라처럼 느리더라도 있는 힘껏 꾸물꾸물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벼락같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바뀔 수는 없다. 그건 만화나 영화 주인공의 얘기고, 내가 사는 삶은 현실이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느리게 바뀌는 수밖에. 그 속도가 민달팽이나 코알라처럼 느리더라도 있는 힘껏 꾸물꾸물 나아가고자 노력했다.
원체 타고난 기질이 신중하여 이곳저곳 발 담가보고 슬쩍 다리 걸쳐두기를 반복했다. 오늘은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내일은 상냥한 선생이 되고 싶었다. 힘을 받은 탱탱볼처럼 우글우글 정신없이 움직이는 마음 따라 안팎으로 부지런히 나돌았다. 요령 따윈 모르고 온몸을 들이밀며 세상을 탐색했다. 어떨 땐 상을 받고 어느 날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 막 울고, 또 언젠가는 잘 해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잘하는 것, 그런데 평생은 못 할 것, 즐겁지만 끌리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평생을 염원할 것들을 구별하며 나를 알았다. 이거 되게 별로다, 했던 날과 같은 깨달음이 삼 년 동안 나를 쑥 관통해갔다. 처음에는 싫은 걸 많이 알았고 후에는 이거 되게 좋다, 하는 걸 더 많이 깨달았다.
그렇게 나를 알았다.
술보다는 커피가 좋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원두 탄 맛이 쓰리게 올라오는 천오백 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우리 집 막내가 정성껏 내려주는, 산미 있는 핸드드립이 좋다. 먹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게 좋다. 최신 것보다는 좀 예스러운 것이 좋다. 한 철 반짝 유행한, 이제는 아무도 돌려보지 않는 드라마 OST가 너무 좋아서 여전히 즐겨 듣는다. 친구와는 서로 욕을 하기보다는 조금 간지러운 말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게 더 좋다. 높은 인구밀도가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말소리보다는 정적인 노래를 틀어둔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게 좋다. 그런데 또 스피커 쨍쨍 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열 받은 타일 바닥 위에서 땀 쨀쨀 흘리며 보는 스포츠는 좋다. 사실 실내스포츠도 좋다. 야구, 배구, 농구, 심지어는 이스포츠도 가리지 않고 좋다. 그 속에도 고지식한 취향이 있다. 폭발적인 기량으로 젊음을 빛내며 잘생긴 낯으로 시선을 끄는 슈퍼스타보다는 묵묵하고 요령 없어서, 자기 일을 몹시도 사랑해 성실하기만 한 선수가 항상 더 좋다. 성실하게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빛나 보이고 그 모습을 동경한다. 실은 성정이 그렇기만 하면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가 아는 슈퍼스타래도 좋다.
이토록 복잡미묘하고 분명한 호오를 조금씩 쌓아 그걸 둥그렇게 뭉쳐 굴려서 '나'를 만들었다. 그를 하나하나 책 읽듯 낱장을 꼼꼼히 훑어 나를 알고 내가 진정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었다. 물론 모든 과정과 결과가 최고일 수는 없다. 매사를 날 위한 선택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행복할 수는 없듯이, 그렇다.
변덕스러운 마음과 소란한 불안은 그 몸집을 크고 작게 부풀릴 뿐이지 그림자처럼 자연스레 따라붙는다. 새내기 시절의 나와 스물넷을 목전에 앞둔 지금의 나는 연속성 없이 단절된 것처럼 다른 사람 같기도 한데 그것만은 늘 함께였다. 그러한, 내 유약한 부분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끊임없이 돌보고 마음을 요목조목 들여다보며 총체적인 나를 따르는 것이 날 위한 일이었고.....
한 번뿐인 소중한 삶. 나의 삶. 나는 내가 너무 좋고 소중해서 최선만을 안겨주고 싶었다. 최선이라는 건 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알고 그를 향해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양껏 끌어모아 후회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다. 가끔은 울적해서 숨이 넘어가도록 자지러지게 울어버리고, 정답이 없는 질문들에 골몰하다 힘을 빼고 늘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사실은 감성적인 선택의 극치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 알게 되고, 어리숙하고 부끄러운 미숙한 면모를 내비치더라도 그게 그 당시에 내가 마음 깊이 원한 일이라는 걸 먼 미래에도 인정하도록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자꾸 쌓아가고 다듬고 스스로 끌어안으면 된다.
나는 한 번뿐인 내 삶을 그렇게 항해하고 있다.

| [ 수필 부문 : 우수 ] | | | |
|---|---|---|---|
| **성 명(학번)** | 정유정(202045528) | **학 과** | 아동가족학과 |
| **작 품 명** | 「다음 생애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 | |

스물다섯은 어떤 나이일까. 최근 들어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곤 한다. 올해가 두 달이 남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의 정체를 모르겠다. 누구는 완전 아기라고 한다. 또 누구는 애를 둘은 낳을 나이라고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울고 있어야 할지 우는 자를 달래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단순히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문장에 물음표를 거는 일을 잊어버리고 만 만큼 바쁜 나이가 되었을 때도, 나는 아마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삶이 하나인 것처럼 스물다섯도 하나일 수밖에 없어서. 이대로 영영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고 싶은 걸 도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에 그 가치관이 흔들렸던 사건이 생겼다. 부산대의 밤거리를 거닐던 날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내려앉아 겨울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함께 밀려오는 묵직한 질감의 구운 빵 냄새가 가벼운 찬 공기와 대조를 주어서 낯설었다. 갖가지 빛깔로 번뜩이는 간판 조명 아래 사람들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여민 채 종종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도로변 가장자리에 초록 텐트를 보았다. 부산대에서 알 사람은 안다는 사주 아저씨의 텐트였다.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작은 낚시 의자에 옹기종기 앉아서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도 궁금했지만, 매번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사주도 철학이니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작은 낚시 의자에 몸을 비집고 앉자 어둑한 텐트 안으로 아저씨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무심하게 내 얼굴도 보지 않으며 "보실 거에요?"라고 물으셨다. 그렇다고 답했다. 생년월일을 말하자, 아저씨의 손이 바쁘게 휘날렸다. 알아볼 수 없는 여덟 글자의 한자가 종이에 아로새겨졌다.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탓이었을까, 운명이지만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복권 당첨번호를 뽑는 것처럼 머리 위에 또록또록 공이 굴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침묵이 익숙해질 무렵, 아저씨가 한마디를 뱉으셨다.

"본인은 단명사주입니더, 운이 29부터 들어오네 그때까지 좀 버티십시오"
처음 들어보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적잖이 놀래서 멋쩍은 분위기를 계산하지도 않고 반응했다.
"네? 저 빨리 죽어요? 이때만 넘기면 괜찮은 건가요?"
"단명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더. 인생 살다 보면 내 친구 중에서 가장 착한 놈이 먼저 갑니다. 착해야지만 빨리 데리고 가지요."
듣고 보니 틀린 말 같지도 않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도 없었다. 평균수명만 봐도 살아갈 날이 4배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웬 말인가. 더군다나 나는 꿈이 있었다. 스쳐가는 스물다섯에도 마음을 걸 정도로 삶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쯤엔 머릿속에 그 질문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렇지만 전 더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전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요."
아저씨는 나의 간절함을 모르는 듯 심드렁하게 답했다.
"잘 모르나 본데 저승 가면 다시 이승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옥 같은 거 없습니다. 이 지구가 지옥이에요."
"왜요?"
"이 영혼이 3차원 세계에 갇히는 순간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느라 벙쪄있는 내 얼굴을 잠시 보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요. 요즘 나는 인생이 심심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녔어요. 일부러 사기를 당해준거야."
3차원 세계에 갇힌 영혼, 그러니 지구는 지옥. 나는 아저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상할 수가 없다. 마음을 나눈 소중한 친구를 일찍 잃어버렸을까. 어떤 현실의 제약에 묶여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이 있었을까. 믿었던 누군가에게 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었을까. 그렇지만 나도 해야할 말이 있었다. 무릎에 둔 주먹에 힘을 주며 남은 용기를 쥐어짜듯 말했다.
"저는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 생애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끝낼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불교의 윤회 사상이 떠올랐다. 이전 생에 쌓은 업의 영향으로 매번 생을 반복하며 괴로움을 겪으며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 그렇지만 그건 부처만 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건, 해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탈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깨달음이 엄청난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
"....."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쇼.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행입니더.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게 최고로 좋습니더. "
그 뒤로 아저씨는 내 사주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얘기해줬다. 불을 조심해야 한다. 어디 건강이 안 좋다. 그런 얘기였지만,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애초에 생년월일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이 쓰인 쪽은 아저씨가 전했던 철학이었다. 처음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스물다섯은 어떤 나이인가. 오직 하나뿐인 나의 생을 위해 나는 무얼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인생 자체가 고행이라고 한다. 죽음, 이 세계에 종결만이 답이자 전부라는 아저씨의 대답에 나는 질문의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면, 나는 전생도 다음 생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생이 정말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라면, 나의 전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나는 지금 무얼 만들고 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나는 진정 여기에 갇혀 있는 존재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밤 골목길, 머리 위에서 조명은 노릇하게 익어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 쌓여갔다. 어쩌면 그 하나의 질문이 요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주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걸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혼란을 주는 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 모든 생각을 거두고 나의 것을 찾아보았다. 누구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무엇일까? 나는 종교도 없다. 아저씨처럼 나의 생을 걸어둘 어떤 철학도 없다. 오직 나는 여기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나에게 마음을 걸 뿐이다. 그래서 글을 쓴다. 여기에 그런 나를 걸어둔다.

글, 아저씨에게도 말했듯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글이었다. 기록을 멈추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글은 바퀴이고, 길이며 나침반이다. 내가 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내 삶에서 자신을 증명해오기 때문이다. 어떤 글을 쓰고 나면 어느 순간 삶의 어느 부분이 변한다. 글에서 나온 상징이, 구축된 어떤 세계와 질서가 삶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이 글마저도 내게 무언가를 바꿔올지도 모른다. 그걸 알고자 나는 첫 문장에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지금 지나가는 이 시기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이 자리에서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디서도 피어나지 못한 글 무더기를 껴안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겹고 별다를 것 없는 다음 생애를 이어가겠지. 이생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채.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쩌면, 아저씨와 나 둘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건 다음 생애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사주 아저씨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말은 온전히 맞지 않았다. 나의 마음과 전혀 달랐다. 그렇다.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지금 내 삶이 고행이라서가 아니다, 저승이 궁극적인 행복이어서도 아니다. 이 삶이 대체 불가능해서다. 그만큼 내 삶을 사랑하고 이것만 한 생이 없으며 이생이 안되며 그게 내 전부일 뿐이다.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느껴졌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잃어버린 생에 대해 아주 강력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작 살아갈 때 누군가의 삶과 자신의 삶을 저울게에 올려두고 재던 무수한 비교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찾을 것이다.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곳에서 다음 생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직 바랄 것은 단 하나, 미처 살아가지 못한 이전 자신의 생애일 것이다. 오직 그곳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이뤄내야 할 꿈이 있으며 오직 나만의 것이니까.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 일 테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람들은 계속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저씨를 다시 만난다면 답할 것이다.

"맞아요, 저도 다음 생애에 태어나지 않을 거에요. 인생은 정말 단 하나 뿐이니까요."

| [ 수필 부문 : 가작 ] | | | |
|---|---|---|---|
| **성 명(학번)** | 이하영(202025314) | **학 과** | 건축학과 |
| **작 품 명** | 「이번엔 진짜 맞아?」 | | |

공모전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도 잠시, 곧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주최 측에서 도록에 사용할 프로필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잘 나온 사진을 찾아 핸드폰 사진첩을 뒤적였지만, 애석하게도 마음에 드는 사진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누가 봐도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 국가유산청 주관 공모전에 제출하기엔 적절하지 않았고. 몇 년 전 찍어 둔 증명사진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나의 취향과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도록 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만, 나는 은연중에 이 한 장의 사진에 꽤나 큰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사진이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며칠 뒤, 친구와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프로필 사진 생각이 났다.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진을 몇 장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좋아하는 체크 남방을 입고 있었고, 꽤 오랜 기간 망설이다 큰돈을 들여 산 안경도 쓰고 있었다. 친구가 찍어 준 사진들을 살펴보니 멋쩍게 웃으며 시선을 옆으로 둔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나왔는지만 보다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른손에 쥐고 있던 책 한 권과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해 보면 책과 핸드폰은 흔히 대척점에 놓인다.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책 좀 읽어라'라는 말처럼, 하나는 가급적 멀리해야 할 것으로, 다른 하나는 가까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사진 안에선 두 사물 모두 나를 드러내는 존재였다. 사진에는 조금 전 도서관에서 빌린 '초예술 토머슨'이라는 책 제목과 투명 케이스를 낀 아이폰 미니라는 정보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핸드폰 뒤에 좋아하는 카레집의 연노란색 명함을 넣고 다닌다. 한 번씩 사람들이 핸드폰 뒤 명함이 무엇인지 묻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카레를 좋아한다는 것, 좋아하는 카레집의 명함이라는 것, 가게 이름은 '토마토'인데 잘 보면 TOMATO 글자가 토마토 모양이라는 것까지 신나게 얘기하곤 한다. 사진에 함께 담긴 사물들까지 나를 표현한다는 게 좋았고,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확신은 금세 흔들렸다. "너무 모범생 같아 보인다", "그다지 잘 나온 거 같지 않다"라는 주변의 반응 때문이었다. 사실 내가 좋으면 그만인데도, 나는 또다시 프로필 사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남이 보는 나를 만들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제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 어쩐지 스튜디오에 가서 돈을 쓰면서까지 찍고 싶지는 않았다. 고민하다가 결국 냉장고 위에 핸드폰을 세워 두고 타이머를 맞춰 혼자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냉장고 맞은편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배경을 통해 또 다른 나의 취향이 드러나길 바랐다. 도서관 앞 사진과 같은 체크 남방으로 갈아입었고, 이번에는 모범생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안경을 벗었다. 테스트 삼아 몇 장을 찍어보니 해볼 만했다. 다만 핸드폰을 세팅하고 포즈를 취하는 데 타이머가 10초는 필요했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하필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찍다가 방전되면 조금 충전해서 다시 찍고를 반복했다. 괜찮은 사진은 있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은 없었고, 결국 두 시간 동안 200장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서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기에 몇 가지 후보를 추렸고, 이마저도 혼자 결정이 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 뭐가 제일 나은지 물었다. 사실 제일 마음이 가는 사진이 있었지만, 나만의 생각일지 궁금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후순위에 두었던 사진을 골랐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좋아하는 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이번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그 사진을 제출했다.

사실 프로필 사진을 이토록 고민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모전 심사 위원 중 한 분이 과거 인턴으로 일했던 사무소의 대표님이었고, 그 도록을 어쩌면 사무소 사람들도 볼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애초에 도록은 관계자들만 볼 수 있기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내 사진을 보는 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알고, 한때 나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본다면 이야기가 달랐다. 어쩌면 다시 '평가받는 나'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마음에 드는 표정과 느낌이 나올 때까지 굳이 시간을 들여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그렇게 난 '보이는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200장의 사진 중 한 장을 골라 '보이는 나'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타인의 시선과 나의 노력이 너무 개입된 결과물이었다. 이런 편집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이 사진이 과연 나의 '진짜 얼굴'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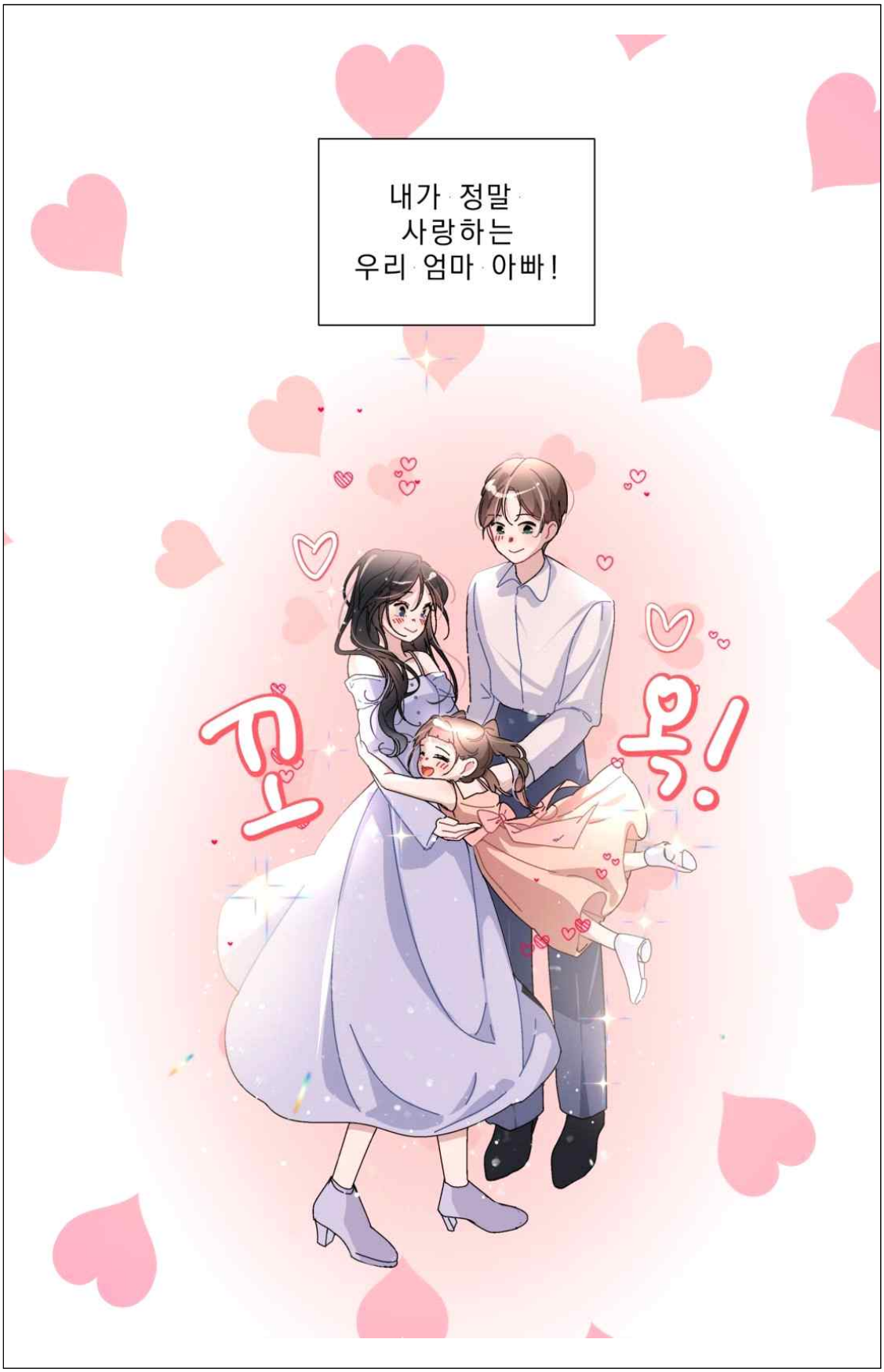
지금 돌이켜보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처음 도서관 앞에서 찍었던 사진에 가까울 것이다. 멋쩍은 표정, 손에 쥔 책과 핸드폰. 모두 의도 없이 우연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의식하지 않은 상태, 그게 아마도 진짜 나일 것이다. 그래서 책과 핸드폰은 어쩌면 나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존재들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 일러스트 부문

| [ 일러스트 부문 : 장원 ] | | | |
|---|---|---|---|
| 성 명(학번) | 정지민(202366235) | 학 과 | 디자인학과 |
| 작 품 명 | 「첫사랑얘기해주세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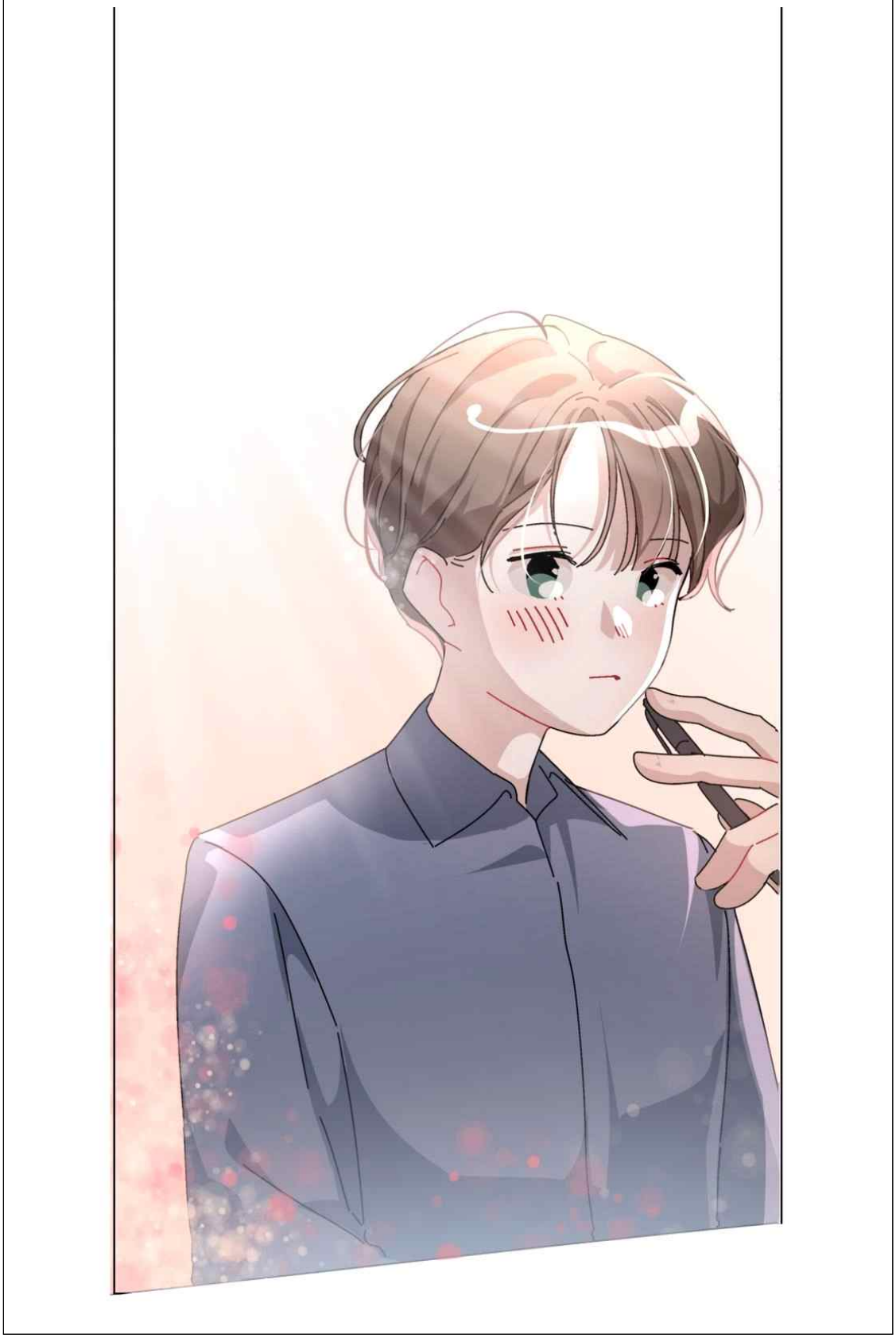



서연아...
지금은 가족 다같이
식사중이잖아...
쉿~...
해주라~
아하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꼬옥!


수궁...
그래...
저는 어릴때부터
엄마 아빠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걸 좋아했어요
아하하!
허헤~
아, 그래서
두분이 어쩌다
만나게 됐냐구요?


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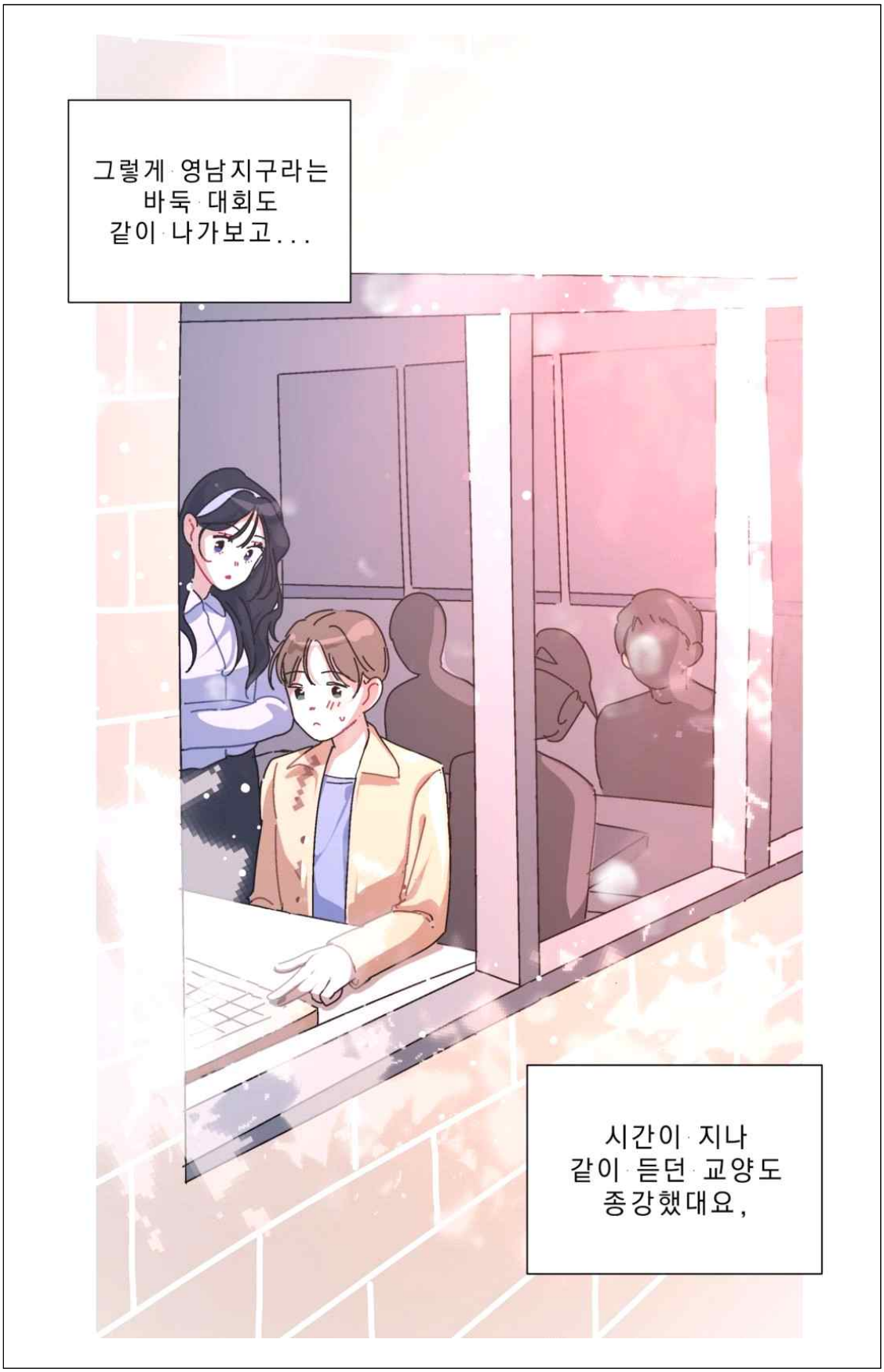



엄마는 몰랐지만,
아빠는 엄마를
인문관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대요!
배고파
예쁘다...
아하하
아니~
봄의 캠퍼스,
사랑이 꽃피는
벚꽃의 계절!
봄 기운에 취하듯,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엄마밖에 안 보였대요.


그럼 엄마는
언제 아빠를
처음 안거야?
헤에~
너네 아빠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서연이는 모르지?
귀여워♡
엄마꺼~


아, 제가 더
말을 이어보자면!
저기...
혹시 바둑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스윽-


저가 출발...
부끄...
기초 바둑 교실 1
바둑을 둘 줄 모르는데
대체 기우회는 어쩌다
들어오게 된거지...?
반짝
반짝
뭐지?
스윽
어...
솔직히 당황했대요ㅋㅋ
그래도 그때부터
겨우 친해진거죠!


그렇게 영남지구라는
바둑 대회도
같이 나가보고...
시간이 지나
같이 듣던 교양도
종강했대요,


그래서 고백은
언제 하는데!!!
삐주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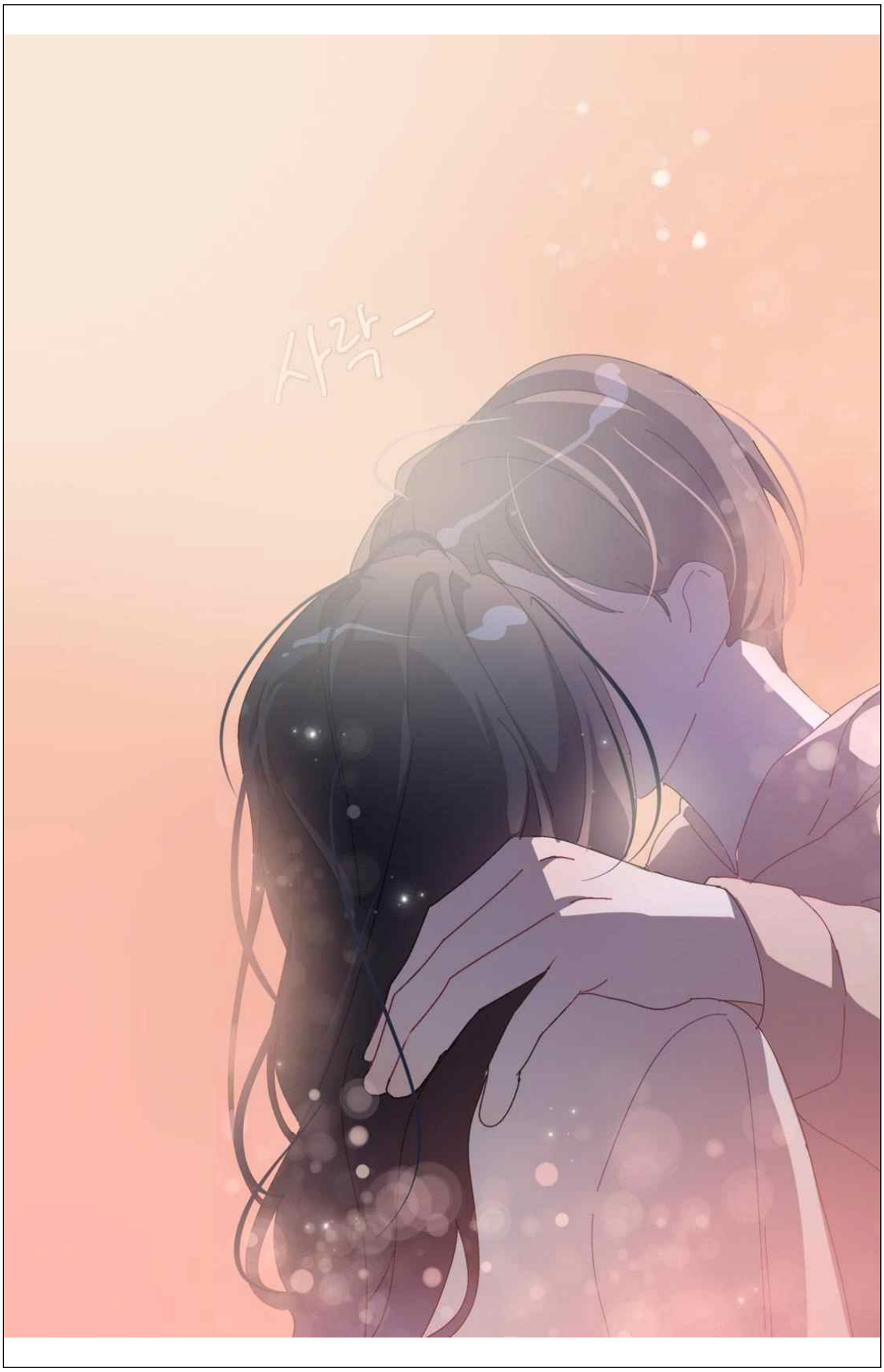

우리딸...
중학생이 되더니
많이 까칠해졌네...
엄마 아빠가
입학식 같이
못 가줘서 그래?
흥~
미워~
미안...
엄마 검진
시간때매...
아! 보자...
어쩌다 했더라...
스윽-
휑...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그래서~
사실 엄마가 전에 말해줬는데 아빠는...
놀리나?
?어지
까응!
왜 화난거지? 오늘은 고백 못 하겠다...
고백을 무려 1년 동안이나 못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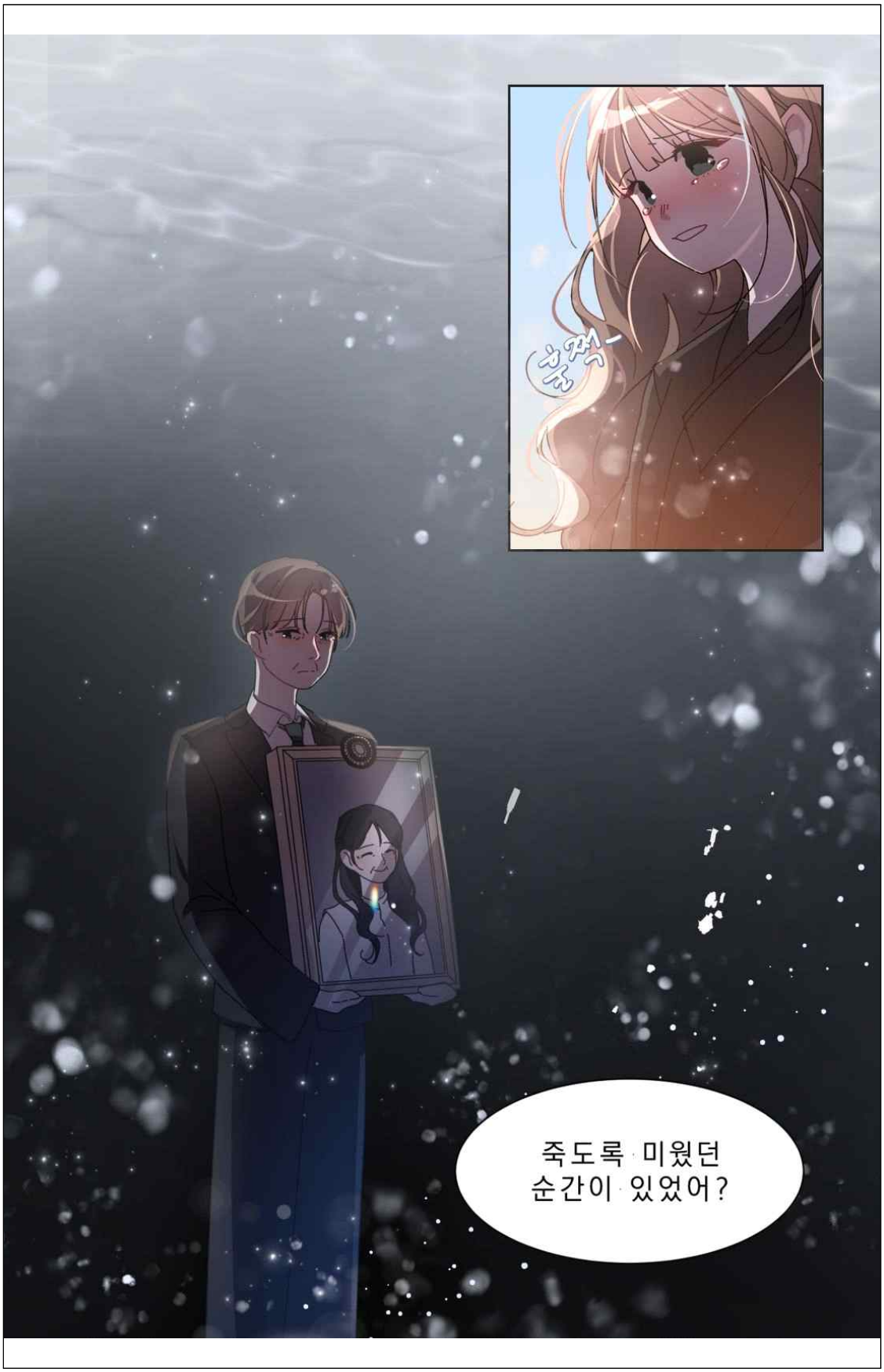

답답한 마음에
엄마는 못 참고
먼저 내지른거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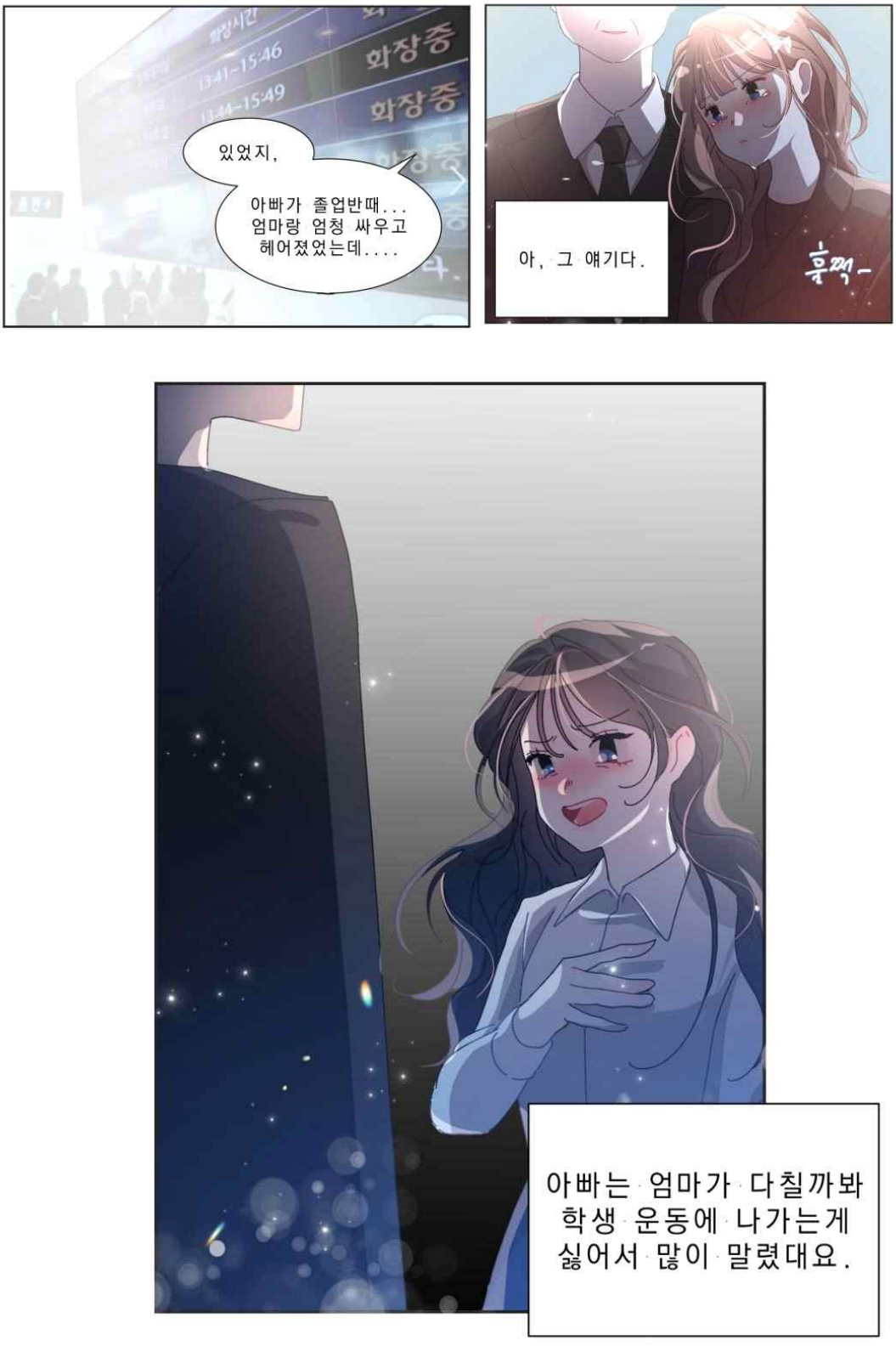

결국 부끄럼쟁이
우리 아빠는...
에헤헤
스윽


사랑ㅡ


정말, 그 행복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꾹꺽-
죽도록 미웠던
순간이 있었어?


나는...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미친듯이 보고 싶으면
어떡해야해?


화장중
13:41~15:46
화장중
13:44~15:49
있었지,
아빠가 졸업반때...
엄마랑 엄청 싸우고
헤어졌었는데....
아, 그 얘기다.
훅쩍-
아빠는 엄마가 다칠까봐
학생 운동에 나가는게
싫어서 많이 말렸대요.


너무 소중하니까...
겁이 나서 싸우다보니
결국 헤어졌었는데
오래 못 갔죠 뭐,
사랑하니까.
꼬옥-
자꾸 잊으려 해봐도,
지워내려 해도
계속 생각만 나서.


그 이후에 엄마도
졸업하게 되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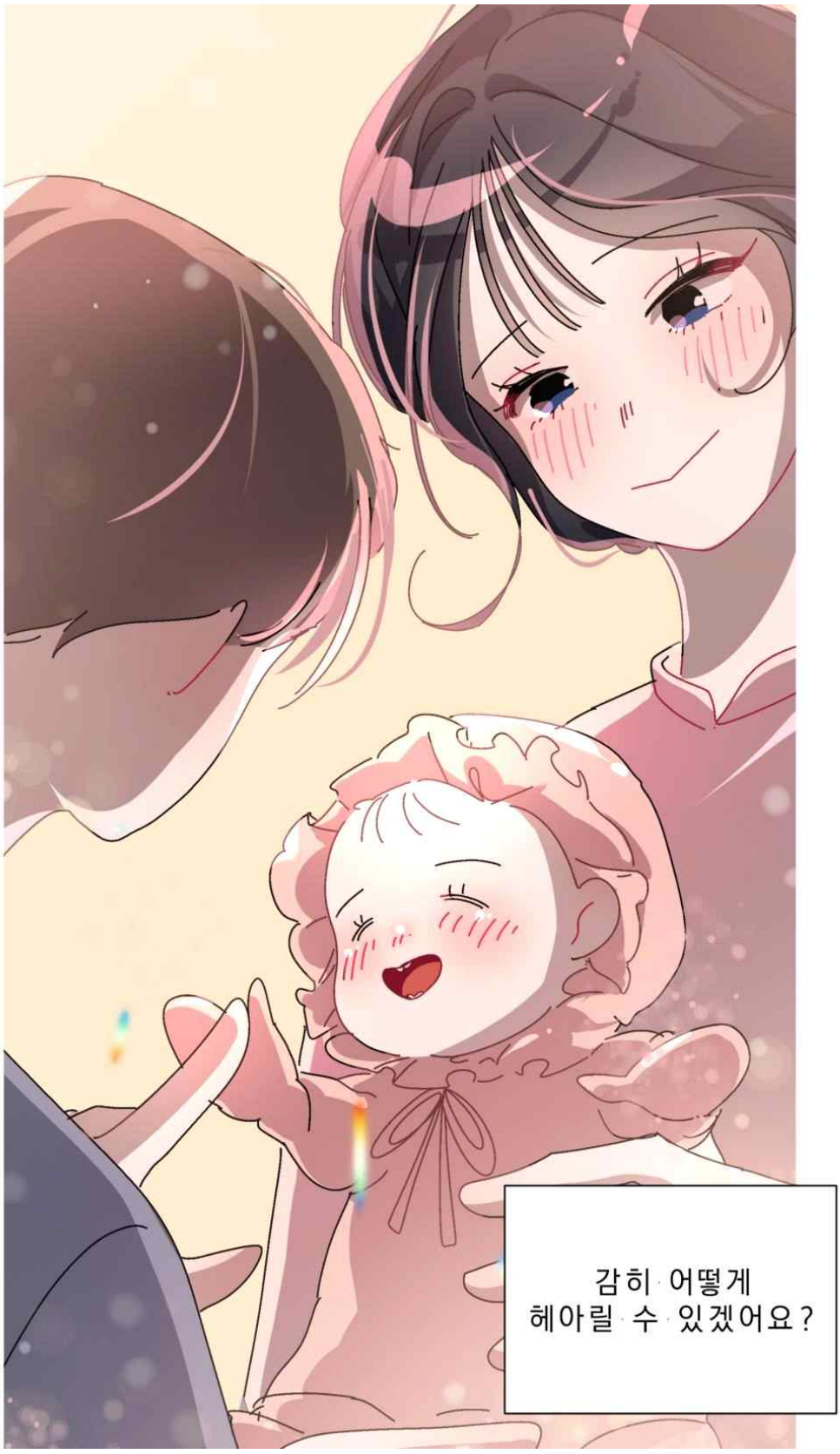

무엇이 그때의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살랑ㅡ


저는 아직 엄마 아빠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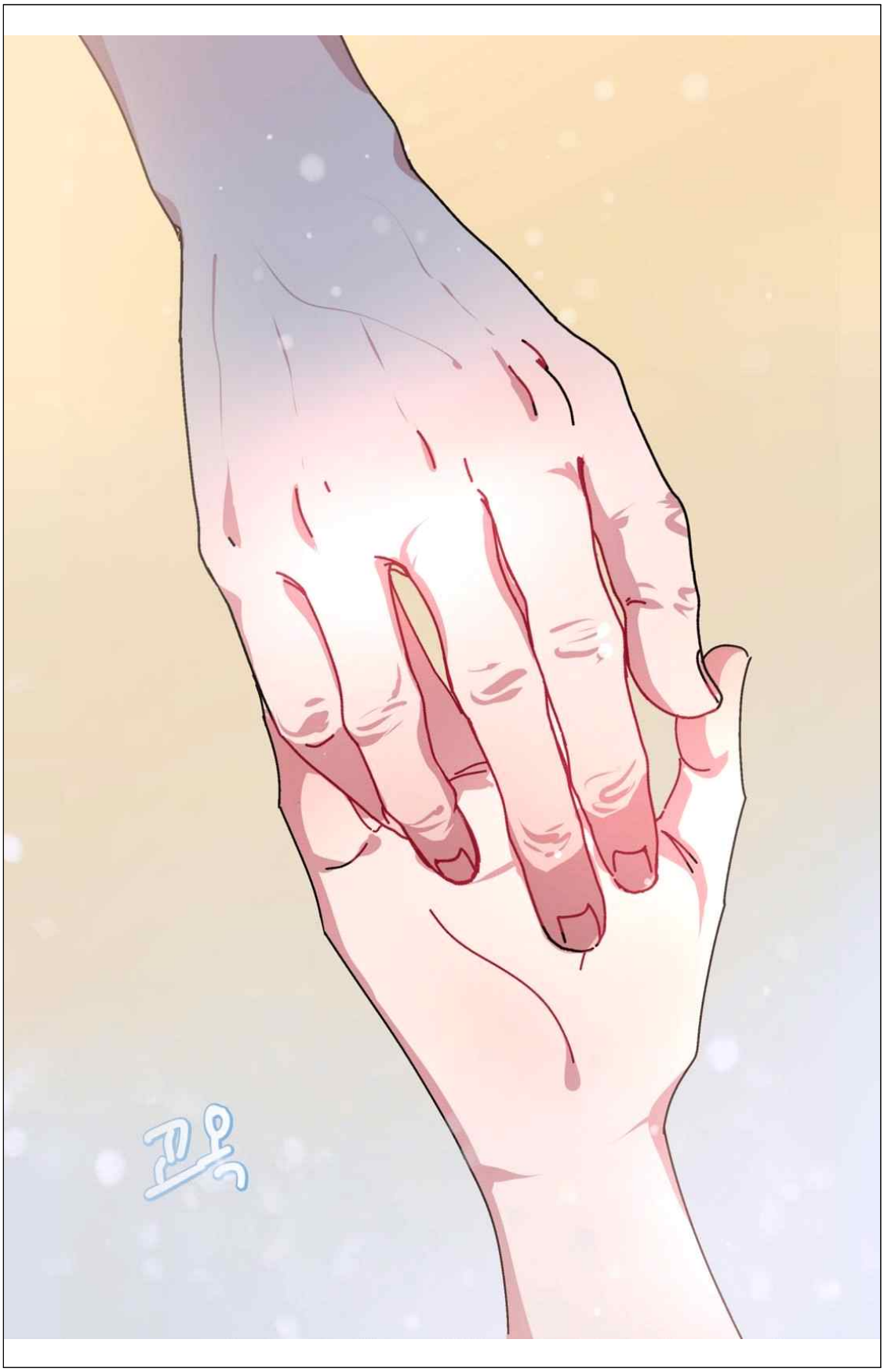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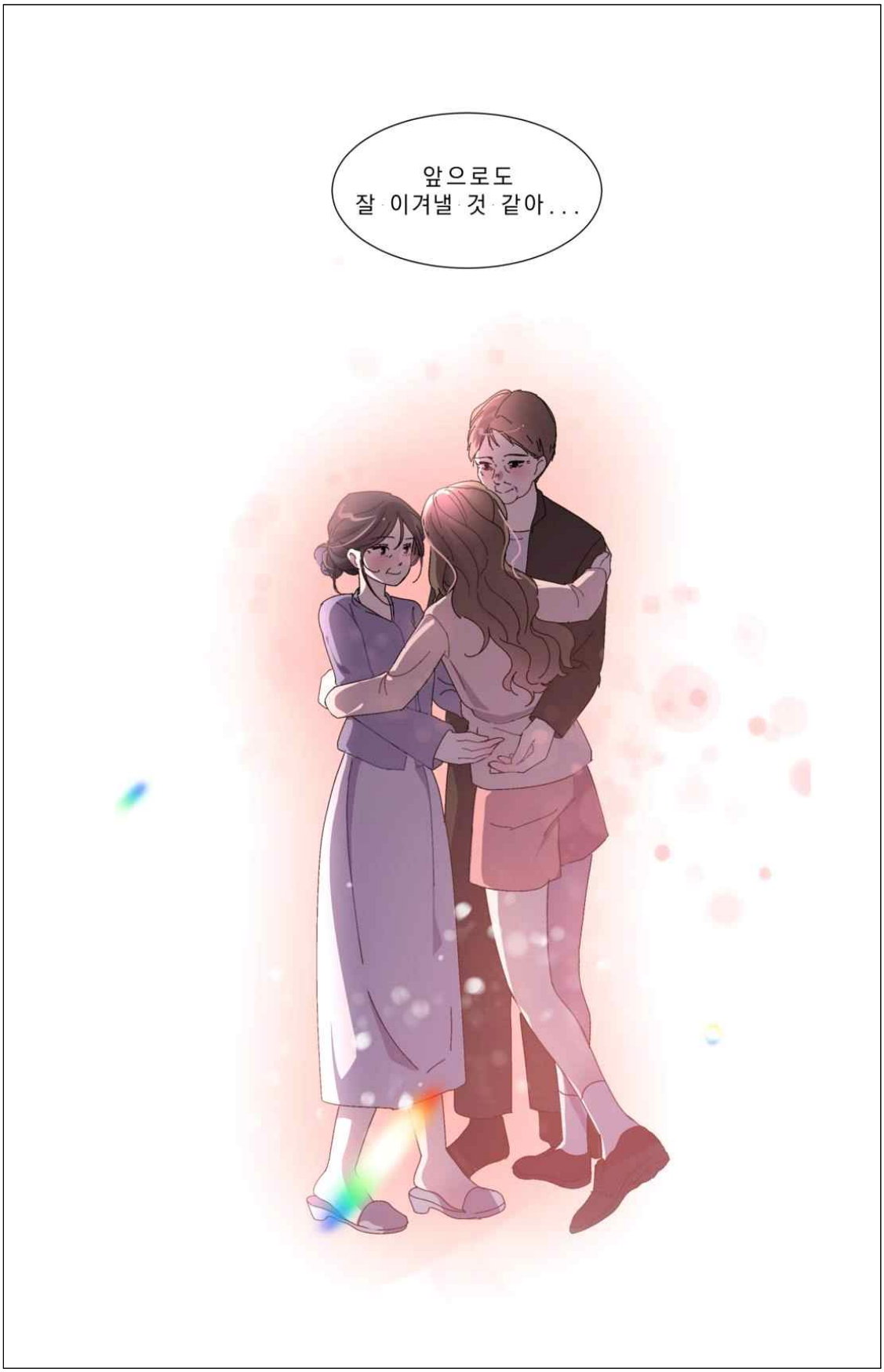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아빠...
스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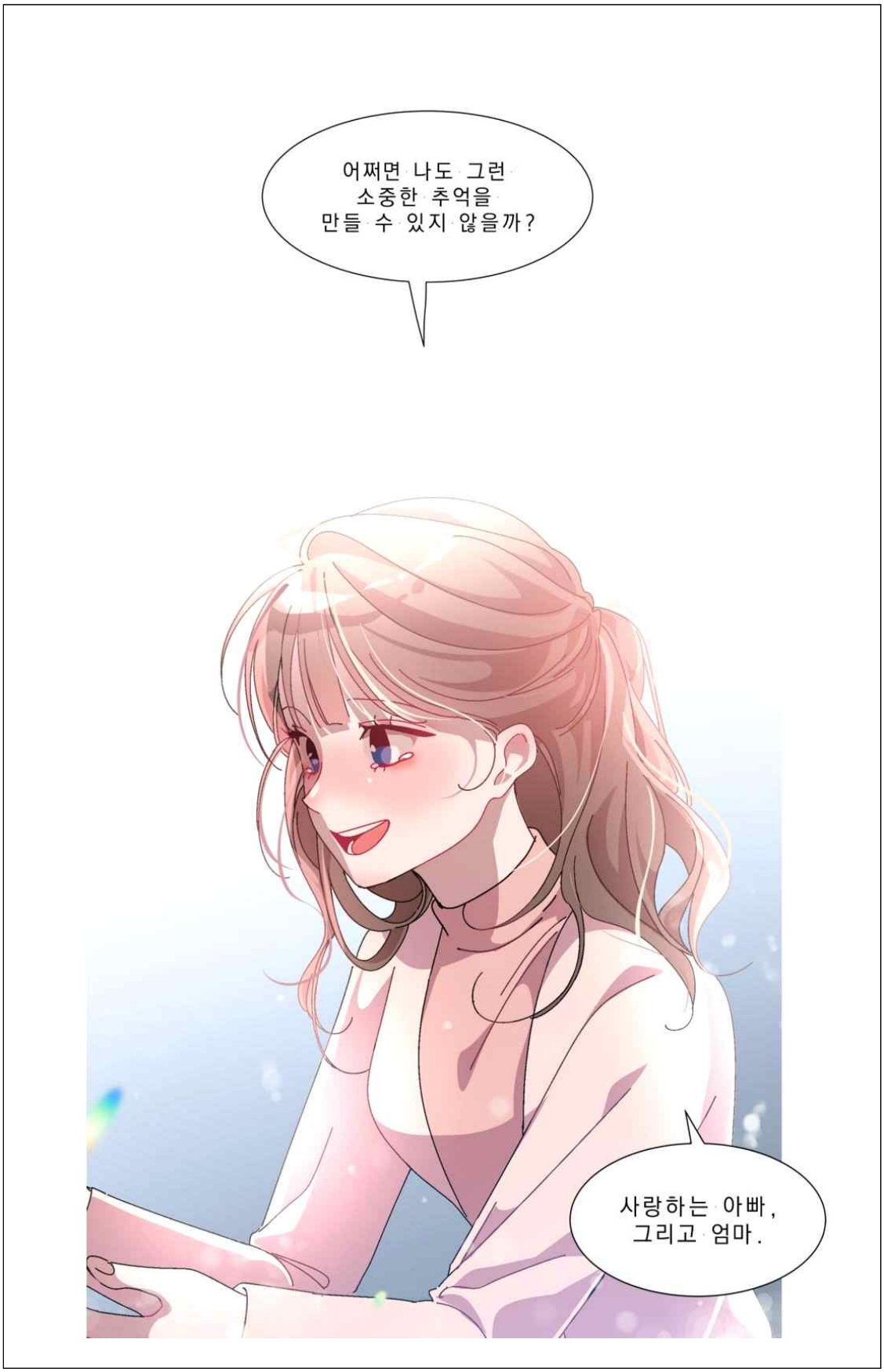



아빠, 나예요.
저 다음주에
부산대 졸업식이에요.
보러 오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누워계시면
어떡해요?
은근슬쩍 맨날
부산대 가라 했으면서
졸업도 못 보고...
혹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따라가려는 건 아니죠?
울컥


그럼 나는
어떻게 버티지...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해준 학교 얘기들 덕에
쓸쓸하지 않게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모든 장소에
엄마 아빠의 추억들이
녹아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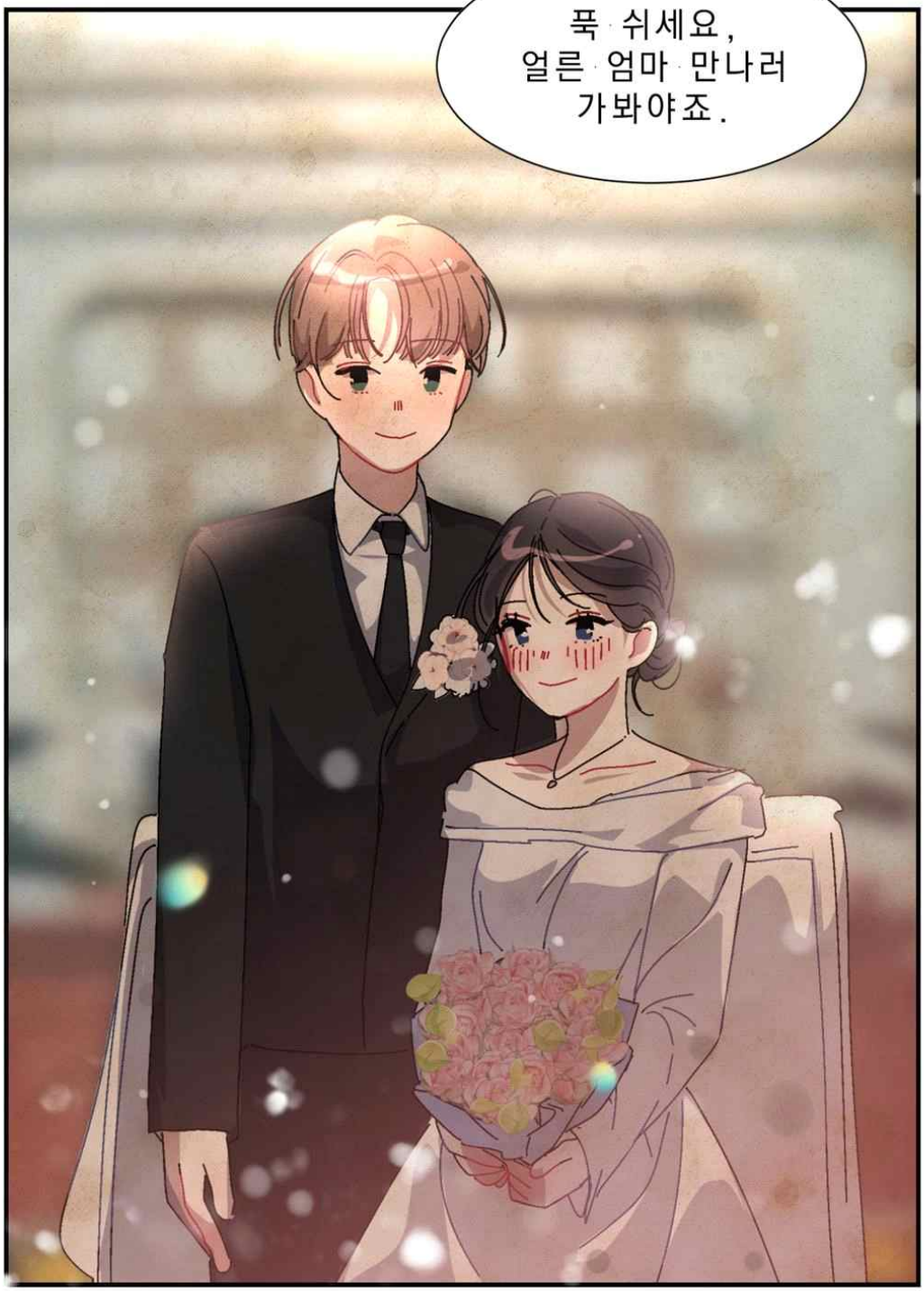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 같아...


아빠가 나는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했었으니까...


어쩌면 나도 그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빠,
그리고 엄마.


쿡서...
저도 그런 멋진 사랑을 해볼게요.


소중한 추억을
건네줘서 고마워요.
활짝!


푹 쉬세요,
얼른 엄마 만나러
가봐야죠.




다음에 만났을 때도
꼭 옛날 얘기
해줘야해요!

| [ 일러스트 부문 : 우수 ] | | | |
|---|---|---|---|
| 성 명(학번) | 김근영(202466225)<br>김가윤(202466224) | 학 과 | 디자인학과 |
| 작 품 명 | 「yolo」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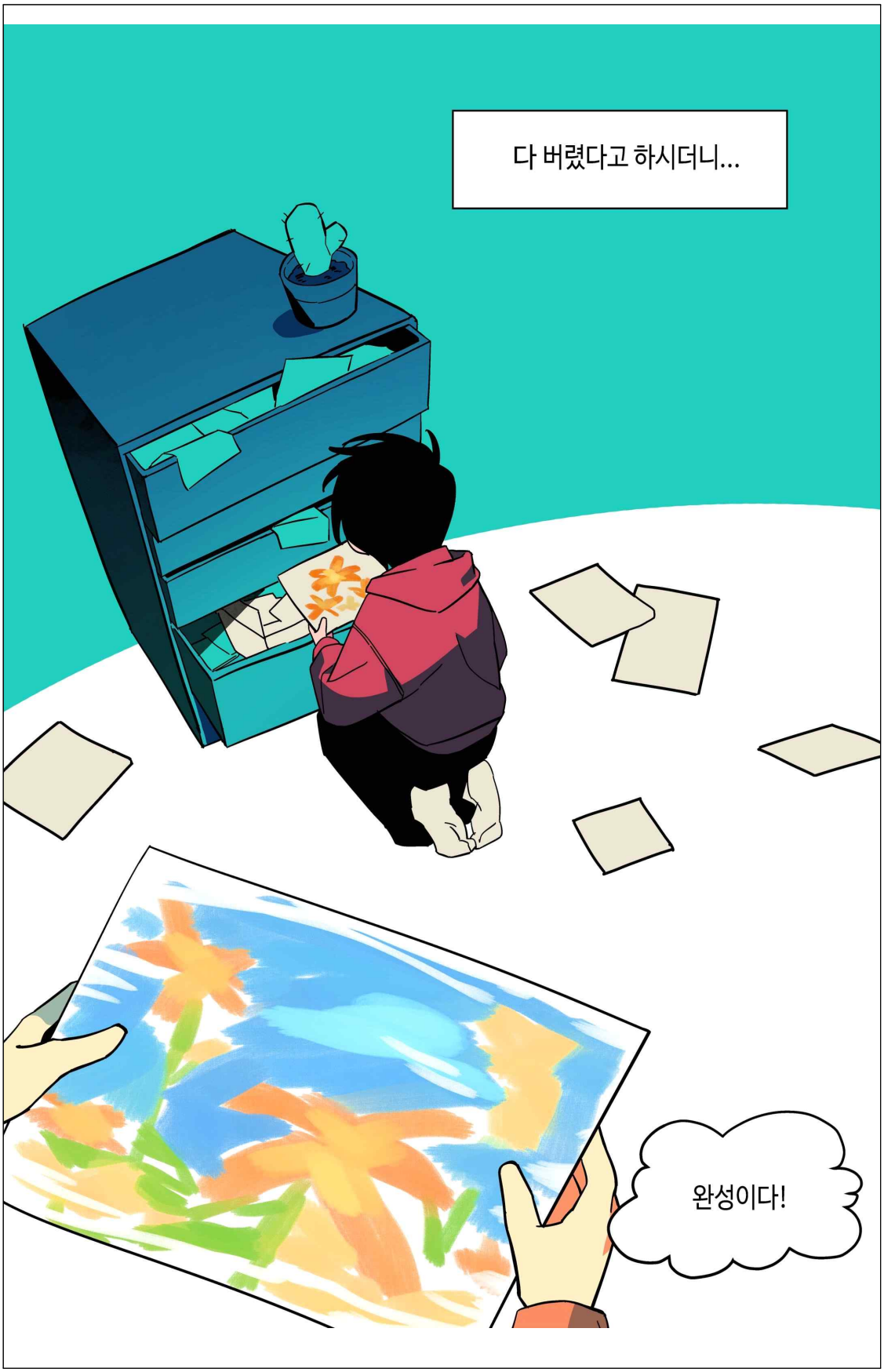

그래, 나 이제
곧 졸업이지...
포트폴리오도
준비 안됐는데...
토익도
아직 안쳤잖아!
... ... 그동안 뭐 했지?


입시 끝나자마자
대학 입학했고
그 후엔... 과제?
공기업
취업을
위한
발걸음
2025
해커톤
○○○교수
특강 초청
시사연구
동아리
토익
+
토플
WEB 발신) 취업전략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다양한 취업 전략!
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 등


다녀왔습니다.
끼
익
피곤하다.
...
아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 지원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 너 학자금 대출받은
통장 안방 서랍에 넣어뒀거든.
성적은 좀 어떠니?
장학금 나올 것 같아?
그거라도 급하게
아빠 수술비로 써야 할 것 같아...
부산대학병원
부담줘서 미안해...




다 버렸다고 하시더니...
완성이다!




하나 더
그려야징!
저기,
나도 같이 그려도 될까?
그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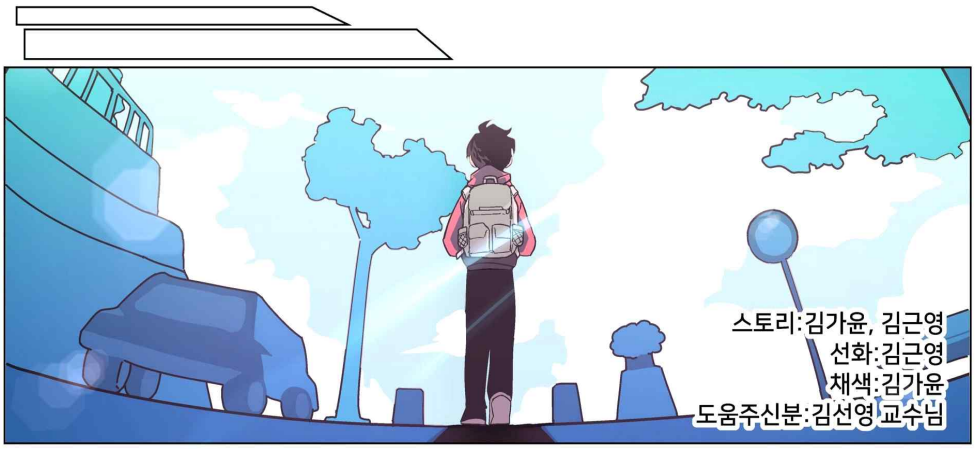

...그래서,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림으로 먹고 사는게
쉬운 일도 아닌데...
그렇가
난 쉬워서
그림 그리는건 아닌뎅.
그냥 그리는게
재밌잖아!
도화지가
알록달록해지면
너무 즐거워.


넌 즐겁지 않아?


즐거워...


내가 같이 갈게!
네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줄게.
앞으로도 그럴거야.


... 고마워.


스토리:김가윤, 김근영
선화:김근영
채색:김가윤
도움주신분:김선영 교수님

| [ 일러스트 부문 : 가작 ] | | | |
|---|---|---|---|
| 성 명(학번) | 김현주(202466227) | 학 과 | 디자인학과 |
| 작 품 명 | 「INFJ와 생각의 바다」 | | |



# 소설 부문

| [ 소설 부문 : 장원 ] | | | |
|---|---|---|---|
| **성 명(학번)** | 김민주(202306197) | **학 과** | 문헌정보학과 |
| **작 품 명** | 「낙하하는 고래 정원」 | | |

잉어? 세수하던 해온은 얼굴에 맺힌 물기를 닦으며 배수구 구멍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분명 붉은색 천 같은 것이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고 있었다. 잉어라니. 샴푸 껍질, 때수건, 하다못해 자기 얼굴에서 떨어진 피라고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개연성이 없었지만, 낯익은 붉은색을 보자 말도 안 되는 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닦을 새도 없이 맨손으로 허겁지겁 배수구 뚜껑을 잡아 올렸다. 아이 주먹만한 잉어가 태연히 헤엄치고 있었다. 난주였다.

난주를 처음 본 건 6살 때였다. 그가 다니던 유치원에는 커다란 어항이 있었다. 어린아이 눈높이에선 거의 수족관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거대한, 벽면 반을 다 차지하는 어항이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전에 있던 수족관이 폐업하면서 두고 간 것이었다. 보통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내부를 완전히 비울 텐데, 어째선지 그 커다란 어항 하나만은 남겨두고 갔다. 그 어항에는 잉어가 몇 마리 들어있었는데, 유치원 측에서는 아이들 정서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철거 비용을 줄이고 싶었는지 몰라도 굳이 어항을 폐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항의 잉어들은 비실비실하고 미관상 썩 예쁘지 않아서,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업자들이 값나가는 것들은 이미 다 건져 간 뒤였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그 어항이 흉물스럽다며 적지 않은 민원을 넣었고, 몇몇 아이들은 어항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지만 그는 물고기들이 마냥 신비롭기만 했다. 그중에서도 몸 전체가 붉은 잉어 한 마리는 아주 특별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말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잉어들 사이 그렇게 붉은데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해온은 그 잉어에게 난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여느 때처럼 하염없이 어항을 쳐다보던 어느 날, 그는 난주를 그 어항에서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커멓거나 점박이로 뒤덮인 잉어 사이 난주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래서 어항 옆에 있는 탁자로 올라갔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벌써 출근 차가 오기 10분 전이었다. 그 사이 난주는 계속 들이닥치는 물살에 휩쓸려가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손으로 난주를 배수구에서 건져 올렸다. 손안에서 비늘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꺼내놓고 보자 난주라는 확신이 더 짙게 들었다. 이리저리 둘 장소를 찾는 잠깐에도 난주는 괴로운지 펄떡거렸다. 감당할 수 없는 물살과 물 밖이라는 죽음 사이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듯했다. 촘촘한 주홍색 비늘이 손 이곳저곳에 닿았다가 떨어지자 축축하고 까끌까끌한 생선 껍질에 소름이 돋았다.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에, 본가에 가져가려고 씻어둔 김치통이 들어왔다. 난주를 김치통에 넣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다.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건 아르바이트하는 아쿠아리움에 도착해서야 알았다. 여기 데려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말의 아쿠아리움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바빴다. 난주는 오전 내내 탈의실 안 사물함에 있어야 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고, 점장에게 난주를 보여주며 혹시 받아줄 만한 곳을 아시냐고 물었다.

"뭐? 웬 말라붙은 생선을 직장에 가져와선. 생선도 마치 자기 같은 걸 데리고 다니는구먼!" 아차 싶었다. 괜히 물어봐서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들었다. 옆에 있던 알바생들이 점장의 눈치를 보며 따라 웃었다. 해온은 굳은 표정으로 뚜껑을 닫고 자리를 벗어났다. 일을 하며 틈틈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여주었지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다. 상심한 해온은 차라리 난주를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었다. 그런데 하필 다음날부터 아쿠아리움이 연휴에 들어가는 바람에 야근해야 했다. 해온은 점장의 지시로 폐관 후 혼자 남아 대형 수조까지 청소했다. 점장은 농담도 잘 안 받아주고 말없이 일만 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온이 원래 그런 성격인 건 아니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감정노동은 최소화하고 싶었다. 아쿠아리움 알바를 지원한 이유는 단 하나, 물고기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설마 텅 빈 어항만 청소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해온은 슬슬 새 알바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다리를 타고 바깥으로 나왔다. 대형 수조는 1층에서는 거대한 유리 벽을 통해 물고기와 잠수부들의 공연을 볼 수 있고,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는 2층에서는 직원들이 수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물고기 밥을 주거나 물을 빼서 청소할 때도 쓰였다. 해온은 대형 수조 안에서 내부를 청소하고, 마친 후에는 수조에 물을 채웠다. 물이 거의 다 차오르자, 수면으로 얼굴이 일렁일렁 비쳤다. 그는 한참 동안 물을 멍하니 바라봤다. 툭하면 자기를 갈구는 점장과 그의 인생을 비웃던 면접관들의 얼굴, 난주의 존재를 믿어주지 않던 어린 시절 어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더 살 이유가 있을까.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영화에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는데, 실제로 그런 극적인 순간에 사람은 철저히 혼자였다. 오히려 그 위기가 심각할수록 혼자 남겨졌다. 죽을락 말락 한 밤도 혼자 어떻게든 넘겨야 했다. 그는 이제 그런 밤들을 참아 넘길 용기가 없었다. 머리에서 시작해 점점 떨어지는 인생의 온도계는 어느새 엄지발가락에 있었다. 그것은 이제 발톱 끝에서 찰랑거리며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한숨을 푹 쉬며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며 그의 몸이 수조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주변 풍경이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눈앞이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리니 그는 2층에 수조 옆에 누워있었다. 수조에 받아놓은 물이 찰랑거리며 그의 머리칼을 적셨다. 이상하게도 눈을 감았다 바로 뜬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몸을 일으켰다. 뒤통수가 참을 수 없이 아팠지만,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해온은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지하철에 올랐다. 막차라서인지 그가 탄 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텅 빈 주머니가 휴대전화를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갈 곳 없어진 손을 김치통 위에 올려두고 멀거니 창문을 바라보았다.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지하철을 탔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창문에 비치는 지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 어쩌다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을까. 문득 창문으로 보이는 자기 모습이 꼭 수족관 속 물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큰 자신이라고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렸을 때 절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모습의 남자가 창밖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릴 때라.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인스타도 없던 시절. 그러나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어머니가 한 음식을 들고 옆집으로 나르던 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놀이터로 가서 모르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던 일, 가족들과 모여 앉아 과일을 먹으며 보드게임을 하던 일, 정신없이 책을 보다가 학원 갈 시간을 놓쳤던 일,

동네 공터에서 이웃들과 고기를 구워 먹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렇게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데 갑자기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몸이 붕 떠올랐다. 무슨 일인지 짐작할 틈도 없이 열차가 어딘가로 풍덩 빠졌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간신히 탈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떨어진 다른 사람은 없나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열차 맨 마지막 칸에 타고 있었는데 그 칸만 떨어져 나온 듯했다. 열차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물이 꾸역꾸역 밀어닥쳤다. 분명 열차가 채 물에 잠기기도 전인데 물이 입과 코로 사정없이 들어왔다. 허둥지둥 열차를 더듬어 깨진 창문으로 탈출했다. 열차를 나오니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면서 머리의 통증이 사라졌다. 주위는 온통 시커먼 물이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방금 탈출한 열차가 가라앉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여기가 어디든 일단 바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위로 올라가려고 팔다리를 힘껏 저어 보았다. 위로 조금씩 올라가자, 해파리들이 둥둥 떠다녔다. 설마 바다인가? 지하철이 어떻게 하면 바다로 탈선할 수 있지. 갖가지 생각과 함께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갔다. 푸하. 가까스로 목을 내밀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둠이 내려앉은 망망대해뿐이었다. 기껏 올라왔는데, 다시 힘이 쭉 빠졌다. 뭐라도 잡을 게 없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예의 불그죽죽한 김치통이 보였다. 허우적거리며 김치통을 붙잡자 그제야 난주 생각이 났다. 황급히 뚜껑을 여니 난주가 쏙 튀어나왔다. 난주는 이제 살았다는 듯 너른 바다로 당당하게 뛰어들더니 어디론가 헤엄쳐갔다. 해온은 홀린 듯 그 모습을 쳐다보다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기 눈에만 보이던 물고기. 하수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 저 아이를 따라가면 살 수 있을까. 그는 홀린 듯 난주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난주가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수면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수해야 했다. 죽을힘을 다해 팔다리를 저으며 생각했다. 최근에는 도통 뇌를 쓸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제 어떡하지. 살 수 있는 걸까. 죽을 위기에 놓이니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 동시에 생각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휘몰아쳤다. 그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젠 희미해지기 시작한 붉은 생명체를 따라갔다. 저 멀리 뭔가가 보였다. 그의 족히 10배는 돼 보이는 거대한 검은색 살덩이가 둥둥 떠 있었다. 고래...인 것 같았다. 두려움에 온몸이 굳는 듯했다. 바다의 왕이 당장이라도 그에게 돌진해 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가 가만히 있는데도 고래는 미동조차 없었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살이 너덜너덜하고 뼈도 군데군데 보였으며 눈은 빛을 잃어 희끄무레했다. 난주는 고래의 살을 파고 들어갔다. 해온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숨을 참는 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였고 올라간다 해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런데 별안간 고래의 입이 쩍 열리더니 해온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몸의 일부가 마치 연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더군다나 힘이 다 빠져버려 저항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수도꼭지로 빨려가듯 고래 몸속으로 서서히 삼켜졌다.

"억!"

익숙한 산소가 피부에 닿자,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다시 못 쉴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물풍선이 터지듯 그의 코와 입은 미친 듯이 산소를 빨아들였다. 숨이 막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던 방금이 아찔하게 느껴졌다. 몸에 피가 돌면서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다. 왜인지 어렸을 때 들었던 대중가요의 가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더니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고래 속은 돔으로 된 대형 벙커 형태였다. 그러나 바닥이 풀로 뒤덮여있어 마치 숲 같았다. 숲 어딘가, 나무로 둘러싸인 비밀 아지트가 있을 법한 곳이었다. 나무 대신 바오바브나무처럼 커다란 분홍빛 산호초들이 빽빽하게 마을을 둘러싸

고 있었고 천장은 뻥 뚫려있었다. 방금까지 그가 있던 어두운 바다가 아니었다. 전체가 이름 모를 섬 연안처럼 파란색보다는 초록에 가깝게 투명한 물로 되어 있었다. 너무 맑고 깨끗해서 마치 물속이 아닌 것 같은. 숨을 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인 것 같았다. 혼란스러웠지만 몸에 닿는 시원한 물의 느낌이 좋았고, 계곡의 새벽 공기 냄새가 은은히 났다. 중심부에는 집들이 모여있었는데, 말미잘이나 소라고둥 등이었다. 마을과 나무의 경계에는 강이 마을을 둘러싸고 둥글게 흐르고 있었다. 시냇물 위 징검다리를 건너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 모여있는 집들은 평화로운 스머프 마을을 연상시켰다. 집들 지붕에 달린 긴 굴뚝에서는 연기 대신 물방울이 방울방울 피어올랐으며 수십 마리의 물고기와 새우, 가재, 게, 불가사리, 해파리 등이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해온은 눈을 연신 끔벅여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해양생물들은 해온을 보자 우르르 다가왔다. 그들은 그를 에워싸고 뻐끔거리거나 집게를 딱딱 맞부딪히며 서로만 알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팔다리에 주둥이를 갖다 대기도 하고 그 주위를 신기한 듯 빙빙 돌기도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해온이 눈을 꼭 감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곧 그를 덮고 있던 물고기들이 싹 걷혔다. 조심스레 눈을 뜨니 난주가 있었다.

“해온아, 안녕.”

“너, 역시...!”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보다시피 좀 혼란스러워서.”

어렸을 때 봤던 물고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한 세계로 오게 된 것도, 난주가 말하는 상황도,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디서부터 물어야 할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난주를 따라가기로 했다. 풀 위에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자, 마을의 풍경이 더 자세히 보였다. 물고기들이 마치 사람처럼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다. 어린 물고기들은 몰려서 헤엄쳐 다니고, 큰 물고기들은 모여서 지느러미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해조류를 손질하고, 조개에서 살을 분리해 내는 등이었다. 야외에 있는 가마솥으로 국 비슷한 것을 끓이기도 했다. 해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겨운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자 모두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몇몇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그 모습에 해온은 다시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난주의 꼬리만 쳐다보며 걸었다. 난주의 집은 길 제일 끝에 있었다. 노란 말미잘로 된 1층 주택이었는데. 다락방으로 보이는 창문도 있었다. 집 안은 전체적으로 노랗고 따뜻한 분위기의 원룸이었다. 말미잘로 되어 있어서 방바닥이 둥글었고, 문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싱크대가 길게 놓여있었다. 오른쪽에는 동그란 탁자와 의자 4개가 있고 왼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창문은 바깥으로 돌출된 형태로 창틀 폭이 꽤나 넓었는데, 이불과 베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아 침대로 쓰는 듯했다. 창문 옆에 난 작은 문 안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했다. 집을 다 둘러보자, 난주가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해온과 난주는 강변을 따라 마을 둘레를 걸었다. 난주가 차분히 입을 뗐다.

“이 세계는 ‘고래 낙하’ 현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야. 고래가 죽으면 사체가 가라앉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심지어 새로운 생태계가 되기도 하지. 여기 ‘정원’도 그렇게 생겨났어.”

해온은 깜짝 놀랐다. 고래 낙하는 그가 졸업작품으로 만든 영화에 등장하는 소재였다. 마을은 자연적으로 탄생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인간 세상에 견줄 정도였다. 그러나 문명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듯 보였다.  주민들은 자기 집 앞의 밭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산호초에서 열매를 채집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온이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었다.
“그런데 넌 왜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넌... 사라졌었잖아.”
“그날, 기억나?”

당연히 잊을 수 없었다. 해온이 난주를 구하려 어항에 뛰어들던 날, 난주를 찾기도 전에 그는 물을 잔뜩 먹고 그대로 어항에 빠졌다. 그때 난주가 해온의 입속으로 들어왔다. 푸딩이 목구멍을 스르륵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숨이 쉬어졌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마치 물에 들어간 적 없는 것처럼 온몸은 뽀송뽀송했다. 그 뒤 어항의 물고기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난주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어른들에게 난주 얘기를 해봤지만, 모두 아이의 상상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해온은 답답했지만 자신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는 표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그 일을 점점 머릿속에서 지워갔다.

난주는 자신이 물고기를 수호하는 정령이라고 했다.
“나는 정령이어서 내가 태어난 곳인 정원 주민들 외에는 날 못 봐. 나는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존재할 뿐이거든. 그런데 너는 나를 알아봐 주었어. 난주라는 이름도 붙여줬지. 그런 너를 죽게 두기 싫어서 네 몸속으로 들어간 거야.”
“역시 그렇구나….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때 물고기들이….”
“나도 네가 아까 뚜껑을 열어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걸.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넌 어렸고, 그 아이들도 어차피 죽어가고 있었어. ”
난주는 해온을 따스하게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원은 난주가 나고 자란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분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놀란 해온에게, 난주는 의연하게 말했다. 원래 자연은 그런 거라고. 해온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고향이 사라진다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난주가 이해되지 않았다.
“근데 네가 갑자기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뭐야?”
“네가 날 불렀어. 간절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성인이 되고 난주를 떠올린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난주는 더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할 뿐이었다. 해온은 난주의 집 다락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난주는 정원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온이 한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온은 우선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 난주의 말이 끝나자 커다랗고 노란 물고기 하나가 뭐라고 뻐끔거렸다. 해온이 머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 같았다. 다른 주민들도 인간이 갑자기 정원에 살게 된다는 것을 수긍하지 못했다. 하지만 난주의 마지막 말을 듣자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곧 회의가 끝났다. 주민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난주는 자신을 구해준 것을 이유로 들어 설명하니 모두 받아들였다고 했다. 난주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양이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였다. 해온은 이튿날 아침부터 다락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케케묵은 짐들을 버리고 창고 전체를 쓸고 닦았다. 그러자 어린 물고기들이 신기한 듯 바깥에 난 창문을 서성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했다. 난주의 설명을 들은 후 해온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커진 눈치였다. 해온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물고기들을 보자 동생들이 생각났다.

그러다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해온을 도와 다락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해온이 고마워하며 물고기를 쓰다듬어주자 다른 물고기들도 쭈뼛쭈뼛 다가와 다락방에 붙어있는 따개비 등을 떼 주었다. 덕분에 해온은 두려움이 한층 누그러졌고, 예상보다 일찍 청소를 끝마칠 수 있었다. 청소가 끝나자, 다락방은 꽤 그럴듯한 안식처가 되었다. 어린 물고기들이 가구로 쓸 수 있는 조개, 이불 등을 가져다주었다. 창문 앞에 책상을 놓고 그 옆에 침대를 두자 어렸을 때 쓰던 방과 비슷했다. 해온은 물고기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다. 그래서 정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울 일을 찾아 보았다. 수많은 알바 경험으로 눈치 보고 일을 찾는 데는 자신 있었다. 길을 걷다 보니, 정원은 매우 더러웠다. 주민들은 표정을 찡그리면서도 아무도 청소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온은 막 집에서 나오는 흰동가리를 붙잡고 물었다.

“저기, 청소 안 하면 불편하지 않아요? 왜 아무도 청소하지 않죠?”

“아, 당신이 난주님 목숨을 구해줬다는 인간이군요? 치워봤자 다시 더러워져요. 그리고 정원이 무너지면 어차피 다들 여길 떠날 테니까요.”

해온은 다락방을 치웠던 것처럼 커다란 짐들을 먼저 한 곳에 모으기 시작했다. 쓰레기는 대부분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뭔가가 잔뜩 담긴 유리병, 고철 덩어리, 입지 않는 옷….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주민들도, 한나절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는 해온을 보자 한 명씩 청소에 동참했다. 해온을 도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정원 전체를 쓸고 닦았다. 저녁이 되고 주민들은 고맙다며 해온을 집으로 초대했다. 큰 쓰레기만 한곳에 모았는데도 정원은 훨씬 깨끗해 보였다. 주민들은 각자 해초나 정원에서만 나는 열매, 직접 수확한 농산물 등을 사용해 요리를 만들어왔다. 다 함께 어울려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해온은 아이들과 들판으로 갔다. 거기서 무궁화꽃 놀이도 하고 얼음땡도 했다. 해온은 오랜만에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뛰었다. 나중에는 힘들어서 다 같이 풀밭에 누워야 했다. 그러자 어른들이 간식을 가지고 왔다. 한 솥 끓인 해초 라면과 주스였다. 팅팅 불어 터진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주민들이 하나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해온도 난주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어.”

역시 너무나 오랜만에 해보는 귀가 인사에 왠지 울컥했다.

“어서 와.”

난주가 소라 수프를 냄비 가득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를 맡자, 해질녘까지 놀다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떠올랐다. 뭉클하고도 그리운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옆집에 사는 푸른 가재가 직접 구운 빵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난주도 고마워하며 수프를 나누어주었다. 보고 싶어 마지않던 풍경이었다. 그 후 몇 번이나 초인종이 울리고 4인용 테이블이 꽉 채워졌다. 해온은 그제야 난주가 수프를 많이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수프를 한 술 넘기고 다른 접시의 요리들을 집어먹을 때마다, 어쩐지 마음이 따스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을 다 먹자, 해파리들이 놀러 와서 밤하늘을 보러 가자고 했다. 난주와 해온, 해파리들은 다 같이 옥상으로 올라갔다. 폭신한 말미잘 위에 나란히 눕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슬슬 눈이 감겨 오는데, 해파리 한 마리가 하늘을 가리켰다. 수만 개의 별똥별이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었다. 바닷속에도 별똥별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는데, 난주가 저건 바닷속에서 떨어지는 죽은 해양생물들의 부유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걸 듣고 나니 어쩐지 별들이 슬퍼 보였지만 그들이 너무 아름다웠기에, 그 죽음의 낙하가 마냥 절망적으로 보이진 않았다.

다음 날, 해온은 남은 청소를 마무리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놓은 들판으로 나갔다. 한쪽에서는 어린 물고기들이 놀고 있었다. 해온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 한 구석이 푹 꺼지며 한 마리가 밑으로 빠졌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틈이 점점 벌어지며 다른 아이들까지 위험해졌다. 빠진 아이는 정원의 잡초를 움켜쥐고 바둥거렸다. 해온은 다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엎드려서 그 아이에게 손을 뻗어보았지만 아이는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갔다. 동시에 구멍이 점점 깊어지며 어두운 색 물이 점점 정원으로 흘러들었다. 정원을 감싼 물이 바깥쪽 물에 힘겹게 저항하고 있었다. 아이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몸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윽고 아이들이 난주를 불러왔지만, 난주는 그냥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해온은 기가 막혀서 눈물이 흘렀다. 난주를 붙잡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난주는 자연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해온은 보다 못해 소리쳤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떻게 알란 말이야! 그냥 죽음으로 떠미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 애들의 부모도, 그 부모도, 그 부모도 모두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에 우리가 평온할 수 있었던 거야.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우린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이래야 자연이 유지되니까.”

“그놈의 자연, 자연! 그럼 그냥 죽지 왜 살아!”

난주는 악을 쓰는 해온을 데리고 마을로 나갔다. 주민들이 정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정원은 사라지는 거냐고 묻자, 난주는 정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라고 했다.

“먹이는 언젠가 끝을 보여. 여기도 오래 못 갈 거야. 알다시피 정원도 살아있는 커다란 고래였어. 몇십 년을 살아온 이 고래는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체의 터전이 되어주었지. 만약 이 고래가 죽지 않고 영원히 헤엄쳤다면 정원도 없었을 거야.”

해온은 그날 하루 종일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잤다. 뭍에 있을 때의 모습이 꿈에 나왔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정원만이 그를 필요로 해주었다.

새벽에 잠에서 깬 해온은 아이가 빠진 구멍으로 다시 가 보았다. 낮에 난주와 했던 대화가 계속 머리에서 울렸다. ‘그냥 죽지 왜 살아’. 그건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었다. 정원에 오면서 이제야 사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다고 느꼈는데. 지금까지 뭘 위해 그렇게 애써왔는지 알 수 없었다. 살면서 해온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해온은 눈물을 흘리며 구멍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없이 깊고 어두운 심해를 바라보자 두려움이 몸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계속해서 아래를 보자 머리가 핑 돌며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다. 어둠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구멍으로 낙하했다. 정원을 벗어나자 다시 숨이 콱 막혔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발버둥을 쳤다. 굳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쉽게 하고 다니는 그였는데도 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별안간 주마등처럼 과거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을 새우며 열심히 공부했던 모습, 영화 찍을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3개씩 뛰던 모습, 찜통 같은 날에도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었던 모습…. 대체로 주어진 것에 저항하던 순간들이었다. 어째서 그런 순간들이 떠오를까. 죽을 만큼 힘들었을 뿐인데. 그냥 다 포기하면 편했을 텐데. 발버둥 끝에 비로소 다시 고래-정원-의 아랫부분이 손에 닿았다. 해온은 헤엄쳐서 고래의 입을 통해 정원으로 들어갔다. 돌아온 정원의 상태는 심각했다. 땅이 산산이 조각나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물론, 발 디딜 곳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빠졌던 충격인지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마을로 가자,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힘없이 정원과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해온이 한 명이라도 구하려고 끙끙대며 아이들의 지느러미를 잡아 건지고 있는데 난주가 해온에게 다가왔다.
“해온아, 애쓰지 마.”
“왜! 넌 정원을 수호한다며. 왜 다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건데!”
“너야말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구멍으로 뛰어내린 거잖아.”
해온은 말문이 턱 막혔다. 난주는 계속 말했다.
“넌 인간을 증오했잖아. 태어난 모습에 저항하는 인간의 세계에 지친 거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뒤에서 아이들의 비명이 들렸다. 해온은 다급히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았다. 아이들이 울먹이며 고마워했지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난주가 우두커니 서 있는 해온에게 다가왔다.
“해온아, 그만….”
난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온은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 애들이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알고 단정 짓냐고. 맞아, 애쓰는 데 지쳤던 거. 인간은 나약해 빠졌고, 이기적이지. 그래서 싫은데,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포기는 못 하겠어.”
난주는 놀라더니 울음을 참는 듯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그를 보며 말했다.
“해온아, 돌아가 이제.”
난주는 해온의 이마에 가만히 지느러미를 얹었다. 그러자 정원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다. 키 큰 나무들도, 기다란 강도, 옹기종기 모인 집들도, 울며불며 발을 동동 구르던 아이들도. 점이 되어 사라지더니 온통 까맣기만 한 공간이 되었다. 그제야 보였다. 정원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 난주가 물었다.
“이제 조금은 살고 싶어졌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해온의 눈동자가 마구 떨리며 멍해졌다. 그럼 정원도, 정원의 주민들도 다 그냥 망상일 뿐이었던 건가. 그러고 보니 정원의 모습들이 매우 낯익었다. 어렸을 때 맛본 음식,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 닮아 있었다. 해온이 자신을 간절히 불렀다는 난주의 말이 떠올랐다. 그 말 그대로였다. 그에겐 누구든 간절히 필요했다.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만 구하며 근근이 먹고 살던 날들 속에 점점 지쳐 가고 있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난주는 처음 자기 앞에 나타났을까. 난주는 그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난주를 똑바로 바라보자, 창밖으로 비치던 자기 모습이 겹쳐 보였다.
“난주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난주는 말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포옹에 안심이 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
“왜 그동안 나를 그런 지옥 속에 내버려뒀어?”
해온은 난주의 품에 안겨서 쏟아내듯 울음을 터뜨렸다. 늘 빠듯한 가정형편, 어린 두 동생.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고, 당연히 좋아하는 것을 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자 좋아하는 것이 점점 사라졌다.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남은 건 결국 꿈의 상실이었다.
“해온아, 정원을 열심히 가꾸고 청소했던 네 모습, 물고기들을 구하려 애쓰던 모습을 생각해 봐. 정원과 정원의 물고기들을 떠올려 봐. 너도 느꼈잖아.”

눈물이 해온의 눈 앞을 가리고 얼굴을 뒤덮었다. 감정에 북받쳐서 말도 똑바로 나오지 않았다. 해온은 숨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떼쓰듯 말했다.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데. 다 거짓이잖아.”
“정원은 너야. 네 마음속에는 정원이 있어. 네가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을 땐 정원을 떠올려봐.”
“그 낙하하는 정원? 멸망해 가는 정원?”
“해온아 정원이 낙하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그는 이제 얼굴이 시뻘게진 채 부들거리고 있었다. 흥분해서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왔다.
“다 죽겠지!”
난주는 부드러운 지느러미로 해온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 주었다. 한참이나 침묵하던 난주는 눈을 감았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더없이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뭐라 소리치려던 해온의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정원의 풍경이 떠올랐다. 해온도 어느새 난주를 따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후 난주가 입을 뗐다.
“낙하한 정원은 낙원이 돼. 고래 낙하는 심해에 있는 생물에게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 되고 심해의 공기를 순환시켜. 심해 생물들에게 낙하한 고래의 사체는 낙원인 셈이야. 너의 정원은 죽지 않아. 끝내 낙원이 되는 거야.”
해온은 눈을 감았다. 아름답고 행복한 정원. 정원의 형형색색 물고기와 산호, 해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었다. 문득 구멍으로 떨어지던 순간이 기억나며 불현듯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계를 모르는, 그렇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일생을 바쳐 말도 안 되는 것을 성공시키려 하고, 끝없이 바라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지쳤었는데 막상 여기까지 오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위해 인간은 그렇게 애쓰는가. 한편 남산타워에 올라 보던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다. 참 아름다웠지. 인간이 밝힌 불들이. 애초에 인간은 자연처럼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자연과 비슷해지기 위해 무모한 짓을 한다. 별을 따라 불을 만들고, 행성을 따라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로 가고 심해로 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설사 그러다 죽음에 이를지라도. 곧이어 몸부림쳐서 결국 다다랐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성적표를 받고 짜릿했던 날, 다 완성된 영화를 보며 환희에 젖었던 날들이. 애써봐도 괜찮을까. 정원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낙원이었다. 그런데 정원이 자신이라니. 사실 낙원은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해온은 난주를 마주 안았다. 울먹이는 입에서 말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난주야. 나 다시 정원에 가고 싶어.”
“해온아. 네가 우리의 정원이야.”
하늘을 올려다보자, 전에 정원 밤하늘에서 봤던 부유물들이 눈처럼 아름답게 내려 얼굴과 몸에 닿았다. 해온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름다운 낙하를 감상했다. 귓가에 다시 노래가 들려왔다.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해온은 눈을 떴다. 예의 질리도록 익숙한 아쿠아리움의 수조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수조 옆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몸을 일으켜 탈의실로 향했다. 사물함에 넣어뒀던 김치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아쿠아리움을 나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다. 또다시 아무도 없을까 봐 조마조마하며 계단을 내려가자 다행히 역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평소라면 짜증만 나던 인파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오늘 하루도 애썼을 그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치원 앨범을 뒤져서 사진을 찾아냈다. 좋아하던, 유치원의 커다란 어항 앞에서 찍은 사진. 정원은 놀랍게도 그 어항 속과 똑 닮아 있었다. 해온은 그제서야 확신했다. 난주가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다음날이 되자마자 아쿠아리움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원래 정한 계약 기간은 지난 지 오래였다. 점장이 또 사회성을 운운하며 뭐라고 쏘아붙였지만 들리지 않았다. 계속 거기서 일하다가는 정원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책장 어딘가에 쑤셔 박아놨던 자기 영화를 다시 틀어 봤다. 영화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반짝였다. 영화가 끝나자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미워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어느새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복수로 자해하고 있었던 것이 후회됐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생각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을까. 그를 구한 건 결국 자신을 사랑한 마지막 해온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부르짖는 마지막 외침. 아니면 처음 물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어린 시절의 해온이 난주를 불렀을까. 나를 더 이상 창피해하지 말라고. 나는 충분히 내가 좋다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자라면서 잃기만 했을까? 6살의 그가 상상이나 했을까. 영화를 한 편이라도 만들어내리라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리라고. 혼자 살리라고. 혼자 요리를 하리라고. 그토록 바라왔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너무 당연해져 버려서, 그걸 이루어낸 자신에게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멀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자신에게서 나는 빛이 보이지 않기 마련이니.

#10년 뒤

찌르르. 귀를 따갑게 울리는 자명종을 끄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기지개를 쭉 한 번 키고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한 뒤 식당으로 내려갔다. 아침은 달걀부침과 햄, 김치에 고슬고슬한 흰밥이었다. 한국인인 그를 배려한 것이리라. 오늘의 아침 담당 Jay가 그를 보고 활짝 웃어 보였다. 동료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며 밥을 먹고, 잠수 준비를 위해 방으로 돌아왔다. 잠수복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열자, 문에 붙어있는 사진이 보였다. 물고기 난주가 그를 보고 웃는 듯했다. 살아내는 게 버겁지 않다. 자신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난주야.”

난주라고 부르면 기도가 둥그렇게 부푸는 듯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Haeon!”

입수 준비를 끝마친 동료들이 갑판에서 해온을 불렀다. 질세라 큰 소리로 대답했다.

“I’m coming!”

늘 손에서 떼놓지 않던 휴대전화 대신 카메라를 집어 들었다. 정원에 갔다 온 뒤 그는 휴대전화를 쓰지 않게 됐다. 대신 바닷속을 잠수하는 그의 곁엔 늘 카메라가 함께한다. 그는 지금부터 꿈에 그리던 정원을 담으러 간다. 죽을힘을 다해 난주 뒤를 쫓던 그날처럼,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사실 자신이 정원을 부르는 것인지 정원이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판별되지 않았다.

*퓽덩*

바닷속으로 들어오자, 점점 가라앉는 거대한 고래 사체가 보였다. 그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Arise PNU
같이 더 높게



# 부산대학교 제20대 교수회
# 문창 문예 공모전 수상작

[ 시, 수필, 일러스트, 소설 ]

부산대학교 교수회